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2. 11. 28(수), 14:00 ~

▣ 장 소 : 고궁박물관 회의실

발행권점점점 7

목 차

【심의사항】

1	「한라산 선작지왓」 명승 지정	공개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명지지구 개발사업 계획변경	공개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공동작업장(바지) 설치	공개
4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토지형질 변경 및 주차장조성	공개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낙동강살리기 (1·3공구) 기간변경	공개
6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1100고지 습지 탐방로 정비	공개
7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가칠봉 풍력발전단지 조성	공개
8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	공개
9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내 기념광장 조성 및 탐방로 정비	공개
10	「제주 천지연 난대림」 내 조형물 설치	공개
11	「제주 천지연 난대림」 주변 조형물(덕판배) 설치	공개
12	「해남 두륜산 대흥사」 일원 관람로 포장공사	공개
13	「태백 검룡소」 내 야생초화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공개
14	「백악산 일원」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변 이동통신용 전주설치	공개
15	「봉화 청량산」 내 단독주택 신축	공개
16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해안 침식방지용 수중 잠제 설치	공개
17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 우륵대(연자암)의 원형복원 및 조형물 설치	공개

【검토사항】		
18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보호구역 지정	공개
19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명승 지정	공개
20	「청송 주산지 일원」 명승 지정	공개
21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일원」 명승 지정	공개
22	「설악산 토왕성 폭포」 명승 지정	공개
23	「설악산 대승폭포」 명승 지정	공개
24	「설악산 십이선녀탕」 명승 지정	공개
25	「설악산 수렴동·구곡당 계곡 일원」 명승 지정	공개
26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 계곡」 명승 지정	공개
27	「설악산 용아장성」 명승 지정	공개
28	「설악산 공룡능선」 명승 지정	공개
29	「설악산 울산바위」 명승 지정	공개
30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 명승 지정	공개
【보고사항】		
31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안)」 보고	공개
3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심의사항】

천기 2012-11-1

1. 「한라산 선작지왓」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한라산(漢拏山) 선작지왓」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라산(漢拏山) 선작지왓」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0.8월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연구용역결과 우수자원 선정
 - '12.8.16~17 지정조사 실시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 '12.9.3~10.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의견접수)
 - '12.10.12 산림청 의견제출('아'항 참고)
 - '12.10.30 문화재청→산림청, 지정예고 의견에 대한 회신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및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국가문화재 명승 지정시 추가 규제가 발생하지 않고,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추진사업 등 보존정책에 대해 적극 협조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귀포시장
-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한라산(漢拏山) 선작지왓」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영남동 산1-1번지 일원
 - 문화재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한라산 일원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음.

- 선작지왓은 한라산 고원의 초원지대 중 영실기암 상부에서 윗세오름에 이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평원지대로서, 선작지왓은 작은 돌이 서있는 밭이라는 의미를 지닌 곳임.
- 선작지왓은 철쭉을 비롯한 낮은 관목류가 넓게 분포하며 자라고 있으며, 철쭉꽃이 온 지역을 뒤덮은 모습은 장관을 나타내고 있고 한라산 정상을 배경으로 하는 눈 덮인 설원의 모습과 더불어 선작지왓의 사계는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
- 산철쭉과 털진달래, 눈향나무, 시로미의 군락이 넓게 발달되어 있고, 그 사이 다소 습한 초지에는 백리향, 흰그늘용담, 설앵초, 구름송이풀, 구름떡쭈크 큰방울새란, 미나리아재비, 별꽃 등이 나타남.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중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화산 등에 해당되고,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에 해당되며,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에 해당됨.

- 문화재구역 : 2필지 / 632,485m²
-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라. 문화재현황

- 입지현황
 - 한라산 주봉인 백록담 화구벽을 정면으로 윗세오름과 방애오름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고산지대의 초원이고, 한라산 초원지대 중 가장 넓은 지역이며, 이곳에는 2개의 샘이 있는데 영실 등반로를 이용하여 윗세오름대피소 가기 전에 위치한 “노루샘”과 윗세오름 동쪽에 방애오름 서쪽 기슭에 위치한 “백록샘”이 있다.
 - 선작지왓 면적은 약 759만평에 달하고, 남동쪽으로는 산벌천이 경계이고 동쪽으로는 윗세 중봉쪽 등산로가 경계이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영실 구등산로가 또 남쪽으로는 해발 1,450m 등고선 주변이 숲을 이루는 지역으로서 죽도리케가 있는 주변이 남쪽 끝이다.
- 유래 및 전설
 - ‘선’은 ‘서 있다’, ‘작지’는 ‘돌’을 가리키는 말이고, ‘왓’은 제주 사투리로서 ‘밭’을 말한다. 즉, 돌이 서있는 밭이라는 뜻임.
 - 옛날에는 선작지왓 내에서는 사냥을 많이 하였는데 넓은 초원지대에서 대륙사슴, 노루, 멧돼지, 꿩 등을 잡았음.

- 선작지왓에는 듽성듬성 높은 돌탑 같은 것들이 있어서 높은 돌탑위에 올라가 사냥을 하고자 하는 짐승들의 동태를 보고 사냥꾼에게 어느 방향에 짐승들이 있다는 방향지시를 소리로 얘기하면 사냥개를 데리고 온 포수들이 사슴이나 노루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개를 풀어 잡는 일이 많았으며 지금같이 총이 흔하지 않은 까닭에 올라가미를 설치하여 사냥을 많이 했음.

○ 지형·지질 현황

- 털진달래와 산철쭉이 한국에서 제일 넓은 군락지로 평가되는 곳이기도 하며, 눈향나무 자생지는 한라산 내에서 최대 면적의 군락지임.
- 진달래와 철쭉이 차례로 피는데 눈이 녹기 시작하는 4월부터 싹이 길어가는 6월초까지 이 초원은 온통 분홍빛깔의 산상화원을 이루며, 초봄 갑자기 추위가 엄습할 때는 진달래 꽃잎에 설화가 입혀지는 진풍경이 연출됨.
- 진달래와 철쭉 사이에는 시로미와 눈향나무 등 키가 작은 관목류가 자라고, 백리향, 한라구절초, 설앵초, 구름송이풀, 구름떡쭈크, 큰 방울새란, 산자고, 구슬봉이, 용담 등 이름도 아기자기한 들꽃들이 계절을 번갈아가며 꽃을 피움.
- 선작지왓은 영실의 병풍바위를 지나 한라산 정상부근의 윗세오름에 이르는 등산로 남쪽, 해발 약 1,600m~1,700m 사이에 해당하며 완만한 경사를 갖는 넓은 초원지대를 말함.
- 선작지왓 일대의 지질은 하위로부터 법정동조면현무암(Qbto)-윗세오름조면현무암(Qwtb) 순으로 분포한다. 법정동조면현무암은 윗세오름 중에서 죽은오름(해발1,690m)과 누운오름(해발 1,714m)에서부터 분출하여 1100도로 주변에서 광범위한 분포를 하며, 한라산 조면암을 피복함.
- 회색 내지 암회색을 띠며, 장식 반점이 우세하고 소량의 휘석과 감람석을 함유한다. 크고 작은 분석구(噴石丘)를 포함하는데, 분석구는 다공질의 분석과 용암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정동조면현무암은 영실매포소 부근의 계곡이나 영실휴게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윗세오름 휴게소에 이르는 구간에서도 노주를 관찰 할 수 있음.
- 영실등산로의 죽은 오름 부근에는 용암류가 부풀러 오른 투물러스(tumulus)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지점에서 남쪽으로 많은 투물러스들이 발달하면서 영실조면암체를 덮고 있다. 이 암석은 1100도도를 따라 어승생에 이르는 도로변과 거린 사슴에서 법정동을 거쳐 남단부는 하원동에 이름.

○ 인문 및 자연경관 현황

- 선작지왓은 노루들의 집단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연중 거의 마르지 않는 2개의 샘인 노루샘과 백록샘은 노루들에게 귀중한 곳임.
- 노루들이 무리지어 산상초원을 누비고 다니는 모습은 마치 산책하는 연인이나 동산을 뛰어 노는 개구쟁이들 또는 단란한 가족들의 나들이처럼 정겹게 보이는 최고의 연미가 넘침.

- 윗세오름 중봉인 누운오름 자락을 돌면서 등산로가 90°가량 꺾이는데, 이 모퉁이에 샘이 하나 있다. 윗세오름대피소에서 가장 가까운 샘인 노루샘이다. 심한 가뭄 때만 빼고는 연중 물이 흐르는 곳이다. 이지역의 샘터는 모두 1급수 임.
-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정상 남벽으로 향하는 등산로를 따라 30여분 동안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방아오름 서쪽 기슭에 백록샘이 위치해 있다.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용출하는 흔치 않는 샘 중 하나인데, 이 샘은 산을 오르내리는 이들에게는 물론 동물과 식물에도 매우 중요한 샘임.

마. 검토의견 (***)**

- 선작지왓은 철쭉을 비롯한 낮은 관목류가 넓게 분포하며 철쭉꽃이 온 지역을 뒤덮은 모습은 장관을 이루고 눈덮인 한라산 정상을 배경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구릉, 화산을 포함하고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로서 국가 명승지정 가치가 높음.

바. 지정조사 의견('12.08.20)

<문화재위원* *>**

- 선작지왓은 한라산 고원지의 초원지대로 영실기암 상부에서 윗세오름에 이르는 곳에 위치한다. 선작지왓이란 작은 돌이 서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이 일대는 산철쭉, 털진달래, 눈향나무, 시로미 등으로 대표되는 낮은 관목류의 군락이 넓게 퍼져 있어서, 철쭉꽃이 피는 계절에는 한라산 정상부를 향한 들관 전부가 아름다운 꽃으로 장관을 이루어 탐방객들을 감동시킨다. 선작지왓에 대한 명승적인 가치는 2010년 8월에 사전 조사를 마친 바 있으며, 비록 세계자연유산과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이미 지정, 관리되고 있지만, 이 지역이 지닌 자연경관적인 가치를 특별히 알리기 위하여서는 국가 차원의 자연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이곳 노루샘에서 흘러내리는 수로를 따라 고산 습지가 형성되고 있어서, 자연명승으로 지정된 후에 집중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이 고산습지가 지닌 학술적인 가치를 구명해야 할 과제가 남겨져 있음.

<문화재위원 *>**

- 선작지왓은 한라산고원의 초원지대 중 영실기암 상부에서 윗세오름에 이르는 곳에 위치한 평원지대로서, 노루샘 등의 수원으로 습지대를 형성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며, 회색내지 암회색의 서있는 돌군들이 특이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명승적 가치가 뛰어난.

- 선작지왓은 철쭉을 비롯한 진달래, 눈향나무 등 낮은 관목류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백리향,한라구절초,설앵초,구름송이풀,용담등 아기자기한 들꽃들이 계절을 번갈아가며 꽃을 피우고 있음.
- 또한 매년 4월~6월이면 철쭉꽃이 온 지역을 뒤덮는 모습은 한라산 정상을 배경으로 눈덮인 설원의 모습과 더불어 대단히 빼어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명승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
- 선작지왓의 경관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중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구릉, 화산 등에 해당되고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에 해당되며,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한 자연유산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명승으로 지정하는데 손색이 없음.

<전 문화재위원 *>**

- 한라산 선작지왓은 영실기암 상부에서부터 윗세오름에 이르기 까지 넓게 펼쳐있는 한라산의 고원지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일대는 고원지대에 자라고 있는 관목류의 식생이 주된 경관을 이루고 있는 곳임.
- 특히, 철쭉 류가 우점하고 있는 고원으로, 철쭉이 만개한 풍광은 온 산이 불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경승이며, 이러한 고원의 풍경을 전면 에 두고 한라산 정상 오름이 그 뒤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 선작지왓은 매우 아름다운 경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한라산 선작지왓은 그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고원풍광의 빼어남을 비롯해, 한라산 정상을 바라보는 조망지점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해보면, 국가지정명승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대상으로 판단됨.

사. 문화재 지정구역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1	영남동	산1	임	10,028,965	341,011	제주 서귀포시 영남동	국(산림청)
2	서호동	산1	임	2,005,211	291,474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국(산림청)
계				12,034,176	632,485		

아. 참고자료(지정예고 기간 중 수렴의견)

<*>**

- 산림공익기능·생물다양성·산림자원의 증축,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위한 국유림 경영계획에 의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추진사업 등 보존정책에 지장으로 지정 부동의 의견 제출

자. 의결사항 : 원안가결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명지지구 개발사업계획 변경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명지지구 개발사업 계획변경을 위해 현상 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명지지구 개발사업 계획변경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참고사항

- '07. 6.01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현상변경 허가
- '10. 4.30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변경계획 허가
- '10. 7.16 천연기념물 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11. 7.27 명지지구 지정구역 일부 해제
- '11. 8.02 명지지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582-3)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 정 일 : 1966. 7. 23.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명지지구 개발사업 계획변경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 변경내용

	㉠선랫	뽕랫내똥 (□)	똥! 똥곳	q 첫말	똥똥 ㅏ	갯 !
	625-9 ㄱ	9,400	5똥	60%똥똥	300%똥똥	갯똥 ㅏ 똥똥 =
똥똥곳	608-5 똥	1,595	3똥	60%똥똥	150%똥똥	갯똥 ㅏ 똥 ㅏ
말-네똥골	607-641 똥	3,476	5똥	60%똥똥	300%똥똥	갯똥 ㅏ 똥똥 =
! ㅏ 똥 3	2009-6 똥	15,779	5똥	50%똥똥	200%똥똥	갯똥 ㅏ 똥똥 =
똥똥 3	2010똥	13,759	5똥	50%똥똥	200%똥똥	갯똥 ㅏ 똥똥 =

○ 사업기간 : 허가일 ~ '15. 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200m이내(2구역, 3층 층고 15m이내)

라. 검토의견(*****)

○ 해당지역은 지난 '11. 7.27 문화재지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사업변경 대상지는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3층 15m 이내)에 해당하는 곳으로 급변 변경신청 내용은 허용기준을 초과하며 건물(5층) 신축으로 문화재 주변경관 훼손이 우려됨.

마. 의결사항 : 부결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공동작업장(바지)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공동작업장(바지)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공동작업장(바지)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강서구청장(강서구 낙동북로 477)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 정 일 : 1966. 7. 23.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문화재구역 내 공동작업장(바지)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2-4번지 인근 지선
 - 사업내용 : 공동작업장(바지) 규모
 - 목 적 : 어업활동에 의한 포획물 선별작업장 설치
 - 규모 / 재질 : 10m×15m / 목재
 - 점용면적 : 1,092㎡(바지 직접점용 150㎡, 고정용 닻 등 간접점용 942㎡)
 - 사업기간 : 허가일 ~ '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낙동강 하류지역은 겨울철새들의 주요 도래지로서 문화재 구역 내 공동작업을 위해 바지선을 설치하는 것은 철새 휴식 및 채식활동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새도래지 보호와 어업활동의 조화를 위해 포획물의 선별작업은 어항으로 귀환 후 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본건 문화재구역 공유수면에 바지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4.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토지형질 변경 및 주차장조성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토지형질변경 및 주차장조성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토지형질변경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번지)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 7. 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토지형질변경 및 주차장조성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범방동 232-3번지 외 3필지
 - 사업내용
 - 토지형질변경

지번	당초		변경		소유자	
	지목	지적(m ²)	변경후 지목	면적(m ²)	성명	주소
계		1,673		1,573		
범방동 232-3	답	542	대	464	엄태경	가락대로 967번지
범방동 1428-7	전	76	대	76	"	"
범방동 252-2	답	881	대	859	"	"
범방동 252-3	답	174	대	174	"	"

- 주차장 조성 : 1,573m²
- 사업기간 : 허가일~'13. 10.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200m(4구역, 10층이하, 36m)

라. 검토의견(*****)

○ 사업부지는 역사문화환경 제4구역으로 지정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된 지역으로 주변 4차선도로 및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주차장조성 및 토지형질변경은 문화재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5.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낙동강살리기(1·3공구) 기간변경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낙동강살리기사업(1·3공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낙동강살리기사업(1~4공구) 현상변경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참고사항
 - '09. 12.7 낙동강 살리기사업(1~4공구) 최초허가
 - '10. 11.1 낙동강 살리기사업(1~4공구) 변경허가
 - 3공구의 경우 인공적인 시설이용 구역을 축소하여 초지 등 자연보호구역 확대와 정비자연구역 내 캠핑장 설치(56,490m²) 추가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광역시 낙동강사업본부장(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134-6)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 7. 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낙동강살리기 사업(1·3공구) 허가기간 연장
 - 사업위치 : 낙동강 살리기 을숙도·삼락지구
 - 변경내용
 - 신청인 변경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부산광역시 낙동강사업본부장
 - 변경신청 내용

구분	사업내용	변경신청	비고
을숙도 지구(1공구)	을숙도 생태통로 설치 수목 등 식재	당초 : '09.12.7~'12.10.31 변경 : '09.12.7~'12.12.31	
삼락지구(3공구)	파크골프장(69,000m ²) 해양레포츠 시설(49,000m ²) 캠핑장 설치(56,490m ²)	당초 : '09.12.7~'12. 10.31 변경 : '09.12.7~'13. 12.31	

- 사업기간 : 허가일~'13. 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구역(기존규모 재·개축)]

라. 검토의견(***)**

- '10. 11. 1. 기 허가된 사항으로 신청인을 변경하고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한 건으로 연장은 필요하나 오토캠핑장 설치가 철새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시민 단체가 주장하고 있어 설계시 사업 보완이 필요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2. 11.22)

< 문화재위원* ***>

- 본 건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하천환경 정비사업(을숙도, 갑락) 중 삼락지구(3공구) 내의 오토캠핑장 건설에 대한 허가기간 연장의 건임.
- 본 건은 2009년 12월 7일 최초 허가를 득한 후 2010. 11. 1, 2011. 12. 1 및 2012. 8. 28.의 3차에 걸쳐 변경허가일정을 조정 받아 2012. 10. 31.로 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 2013. 12. 31.까지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안임.
- 현지조사 결과 허가 받은 사항 중 잔디식재 등, 일부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캠핑장 편의시설 등 설치 예정 시설이 사업자 변경 및 추가 사업비 확보의 지연 등으로 예정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아 허가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됨.
- 본 건은 최초 허가 때에도 심의한 바와 같이 낙동강 철새도래지의 문화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기간 연장은 허가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위원 ***>

- 천연기념물 제 179호 낙동강하구철새도래지는 천연기념물 제 201호인 고니류를 비롯하여 기러기 및 오리류들이 다양하게 도래하는 장소로 천연기념물 조류는 물론 조류의 종다양성 보존 측면에서 중요한 곳이다. 또한 우리나라 및 해양도시 부산 광역시 시민들의 여가를 위한 휴양시설로 캠핑장을 포함한 해양레포츠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따라서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본 현상변경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1) 본 사업은 부산지방 국토청장이 2009년 12월 7일 ~2012.11.31일까지 문화재청장으로 부터 허가를 얻은 사업이지만 사업비 확보 문제로 1년간 사업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사업 임
 - 2) 현지 방문 결과 사업예정지는 낙동강살리기사업 하천환경정비(을숙도, 삼락) 계획에 의해 본 사업예정지와 경전철 구간으로 나누어진 인근에 철새 먹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수면방향으로는 선박(요트 등) 계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임.
 - 3) 본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낙동강살리기사업 하천환경정비(을숙도, 삼락)계획에 의하면 본 사업예정지 일대는 캠핑장을 포함하여 해양 레포츠 시설단지로 활용하도록 돼 있는 공간임.

- 4) 현재 본 사업예정지 인근은 이미 체육시설(축구,농구, 야구장 등)이 설치되었으며 선박계류장도 설치되어 있음. 그러므로 본 사업예정지 일대는 시설물에 의한 영향으로 철새들의 도래 개체수가 많지 않음.
- 5) 한편 경전철 하류의 철새 먹이터 조성지역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적으며(통제) 갈대 및 수로 등이 조성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철새들이 채식지 및 휴식지로 이용하고 있음.
- 5) 그러나 한편 본 사업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되면 일부 수질오염 및 시설물에 의한 시각 등의 요인으로 철새도래지에 방해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본 시설의 운영시에 예상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의 차단. 그리고 시설물의 도색 및 주변의 녹화를 통한 친환경적이며 경관적인 환경정비를 하고 공사 수행시 주 철새 도래기간을 피하는 등 규정을 지키면 본 사업으로 인한 철새도래지에 대한 피해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의견>

- 낙동강살리기사업이전 삼락둔치는 약26만평의 경작지로 겨울철에 밭작물을 재배하던 곳으로 겨울철새가 둔치를 이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음.
-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경작지를 전부 철거하고 삼락둔치 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문화재현상변경허가 '10.10월) 부산-김해경전철 하류부는 겨울철새를 위한 먹이터 및 수로 등을 설치하여 철새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상류부는 계류장, 캠핑장 등 친수이용공간으로 계획 하였음
- 당초, 캠핑장을 낙동강살리기사업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확보가 지연되었고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선정되어 '13년 국비10억, 시비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삼락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것임
- 현재 ***에서 설치예정인 삼락오토캠핑장은 당초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은 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위치나 면적의 변경은 없으며, 낙동강분류와 약 100m이상 떨어져 있어 수변부의 철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 또한, 오토캠핑장 조성계획을 위한 실시설계 단계부터 친환경적 공법과 자재를 활용하여 철새나 주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공원 조성에 적극 노력
 - 발생 오수는 하수관로 직접연결, 인공구조물은 친환경자재 사용
- 아울러,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 환경 단체 등과 자문회의 개최 등으로 생태체험형 캠핑장 조성
 - 캠핑장 운영시 생태환경적 교육·홍보 적극 시행
- 철새도래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미 조성된 철새먹이터(김해-경전철~낙동대교) 활성화 방안 및 삼락둔치내 맹꽁이, 수달등의 서식처 보존 방안 강구
 - 환경단체와 연대,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협력체계 유지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6.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1100고지 습지 탐방로 정비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1100고지 습지 탐방로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1100고지 습지 탐방로 정비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 지정일 : '66. 10. 2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1100고지 습지 탐방로 정비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섹달동 산1-1
 - 사업내용
 - 기존 데크 544m(B=1.5m) 철거 후 674m(B=1.2m) 신설
 - 기존 노선 중첩 150m(탐방로 입구), 철거 394m, 신설 524m
 - 지면으로부터 0.5~1.0m 이격하여 설치
 - 쉼터 조성(3개소)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1100고지 휴게소 건너편 습지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노후된 탐방로를 철거 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7.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가칠봉 풍력발전단지 조성

가. 제안사항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가칠봉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가칠봉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 가칠봉 풍력발전단지 조성 신청 및 심의결과[신청인 : (주)한국**에너지]
 - '09. 3월 1차 신청 100MW(2MW×50기), 높이80m(천연보호구역내 40기)
 - '09. 3.25 문화재위원회 심의(보류)
 - '09. 4월 2차 신청 40MW(2MW×20기), 높이80m(천연보호구역내 15기)
 - '09. 4.15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
 - 천연보호구역 내에서의 풍력발전시설 설치는 생태적, 경관적 훼손이 크게
우려되는 등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다만, 천연보호구역 밖에서의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은 재
검토 할 수 있는 사항임
 - '10. 1월 3차 신청 20MW(2MW × 10기), 높이70m
 - '10. 1.27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한국**에너지(대표이사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46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강원 양구군 동면 일부, 인제군 서화면 일부 및 북면 일부
 - 지정일 : '73. 7. 1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가칠봉 풍력발전단지 조성
 - 사업위치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산1

○ 사업내용

- 풍력발전기 : 10기[20MW(2MW × 10기)], 높이 78m
- 전 기 실 : 1동 492㎡
- * 기존 신청과 차이 : 설치수량·위치 동일, 규모(높이70m→78m) 차이
- * 금회 10기 설치 후 2차 20기, 3차 20기 설치 예정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동 사항은 동일 신청인이 2009~2010년까지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총 3차례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모두 불허된 사항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보류

8.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

가. 제안사항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 풍력발전단지 조성 신청 및 심의결과[신청인 : 한국**발전(주)]
 - '06. 9월 1차 신청 20MW(2MW×10기), 높이80m
 - '06.10.25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
 - 문화재구역내 생태 및 경관의 추가적 훼손이 우려됨
 - '07. 1월 2차 신청 20MW(2MW×10기), 높이60m
 - '07. 1.24 문화재위원회 심의(불허)
 - 생태적·경관적 훼손 우려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발전(주)(대표이사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46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강원 양구군 동면 일부, 인제군 서화면 일부 및 북면 일부
 - 지정일 : '73. 7. 1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풍력발전단지 조성
 - 사업위치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산1
 - 사업내용 : 풍력발전기 8기[16MW(2MW×8기)], 높이 80m, 날개 폭 91.3m
 - * 기존신청과 차이 : 설치수량(10기→8기)m, 규모(높이 60m→80m) 차이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동 사항은 동일 신청인이 2006~2007년까지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총 2차례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모두 불허된 사항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신청인인 한국중부발전(주)은 지식경제부로부터 동 지역에 대한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공기업임

마. 의결사항 : 보류

9.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내 기념광장 조성 및 탐방로 정비

가. 제안사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내 기념광장 조성 및 탐방로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내 기념광장 조성 및 탐방로 정비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귀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산1 외
 - 지정일 : '00. 7. 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국토 최남단 기념광장 조성 및 중앙 탐방로 정비사업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마라도 일원)
 - 사업내용
 - 기념광장 조성 : 상징조형물(H4.0m) 설치, 제주석 판석포장 및 앉음벽, 잔디포장 등
 - 중앙광장 정비 : 파고라(3.6×10.4×H3.4m) 1식, 평상(3.0×2.1m) 3식, 코이어야자매트 90m²
 - 탐방로 정비 : 코이어야자매트(B=1.0) 설치(2개소, 총229m) 목재난간(1.5×H1.1m) 신설 및 정비 L= 114m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동 건물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따라 태풍피해를 입은 관람 편의시설 정비 및 마라도 상징 조형물을 설치, 기념광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태풍 등으로 인해 훼손된 관람 편의시설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나 마라도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 기념광장 조성은 문화재 경관과의 조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10. 「제주 천지연 난대림」 내 조형물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천지연 난대림」 내 조형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천지연 난대림」 내 조형물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귀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79호 천지연난대림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73외
 - 지정일 : '93. 8. 1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관광지 문화콘텐츠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657-1
 - 사업내용 : 조형물 설치 4,000×3,000×650mm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동 사항은 지정구역내 노천광장에 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전설을 토대로 스토리텔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의견)

- 동 사업은 문화재 지정구역 내 문화콘텐츠 제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여름철 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천지연과 관련한 전설을 스토리텔링화하고 상징화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11. 「제주 천지연 난대림」 주변 조형물(덕판배)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천지연 난대림」 주변 조형물(덕판배)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천지연 난대림」 주변 조형물(덕판배)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 서귀포에서 추진한 제1회 탐라대전 행사 시 축제 전시공간에 전시하였던 덕판배를 천지연 난대림 주변 서귀포 칠십리 시공원에 이설하여 전시 및 갤러리 창작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서귀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79호 천지연난대림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73외
 - 지 정 일 : '93. 8. 19.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제주 전통 덕판배 전시 및 활용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648-20
 - 사업내용
 - 규 모 : 51m×폭 20m, 높이 최고5.6m(뱃머리), 최저 2.5m(선미), 설치면적 408㎡, 원형으로 설치
 - 공간구성 : 창작공간, 전시공간으로 구성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67m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 : 기존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 신청부지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된 곳에 제주 전통 선박인 덕판배를 설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경관 및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마. 참고자료(**** 의견)

- 동 사업은 제주도에서 실시한 제1회 탐라대전 행사 시 고증을 통하여 행사장에 전시되었던 제주 전통 선박인 "덕판배"를 전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임
- 신청부지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원이화되어 이루어졌으며, 주변에 2층과 1층 주택이 현존하고 있으며, 제주 전통 선박인 "덕판배"를 전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인 아닌 일반 시설물임을 감안,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12. 「해남 두륜산 대흥사 일원」 관람로 포장공사

가. 제안사항

「해남 두륜산 대흥사 일원」 내 기존 관람로에 대하여 황토포장 등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해남 두륜산 대흥사 일원」 내 기존 관람로가 지난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깊이 세굴되어 많이 훼손된 관계로 이를 방지하면 수로로 변경될 수 있어 측구배수로를 갖춘 황토길로 포장하고자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해남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6호 해남 두륜산 대흥사 일원
 - 소재지 :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8-1번지 등
 - 지정일 : 2009. 12. 0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대흥사 일지암과 북미륵암자 간 관람로 황토길 포장
 - 사업위치 :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8-1번지
 - 사업내용 : 황토길 포장 1.3km(면적 8,161㎡), 측구수로 1.3km, 전석쌓기, 통수교 설치 등
 - ※ 동 사업은 당초 콘크리트 포장과 일부 신규 관람로를 확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현지조사 시 황토길 포장으로 사업변경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10.31일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기존 관람로가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많이 세굴되어 이를 방지할 경우 더 훼손될 우려가 있으나 자체 예산으로 이를 예방하고 복원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변 경관에 긍정적 요소로 판단됨.

마. 현지조사 의견

< *** 문화재 전문위원 >

- 콘크리트 포장은 우수의 지하침투를 억제하고 지표유출을 증가시켜 표토침식을 가중시키고 계곡의 건천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억제할 수 있는 공법, 예컨대 황토포장이나 아스콘 등의 친환경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측구수로의 규모는 호우시 상부사면으로부터 유입하는 지표유출을 산출하여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제원의 측구수로를 설계하여 범람으로 초래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1공구 종점부 주변에 발달한 암괴류 지대를 우회하기 위하여 기존 등산로를 벗어나 새롭게 개설하고자 하는 관람로는 사업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13. 「태백 검룡소」 내 야생초화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가. 제안사항

「태백 검룡소」 지정구역 및 인근에 야생초화원 등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태백 검룡소」 지정구역에는 야생초화원과 탐방로를 인접지역에는 관찰 및 자연학습용으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자연학습, 관찰,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태백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73호 태백 검룡소
 - 소재지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1-1번지 등
 - 지정일 : 2010. 8. 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야생초화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
 - 사업위치 :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167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야생화 공원 및 탐방로 조성 등
 - 야생화공원 6,800㎡, 옛길 복원 1,514m, 탐방로 정비 330m, 관찰로 조성 460m, 쉼터공원 330㎡, 기타 시설물 정비 등
 - 사업비 : 1,950백만원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12.31일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및 인접 지역

라. 검토의견 (*****)

- 기존 관람로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한강의 발원지로서 청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단지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기존 관람로 외에 새로이 생태탐방로를 개설하는 행위는 불필요하다고 보여짐.

마. 현지조사 의견

< *** 문화재위원 >

- 야생화공원은 도시지역 공원에 조성하는 것처럼 앓음 벽, 습지 수생 관찰 데크, 휴게쉼터(너와정자), 돌계단진입로, 목교 등의 인위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으며, 부지 내를 구획지어 산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는바, 이는 '검룡소'라는 한강발원지 상징경관을 고려해 볼 때 원형 그대로 보존하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수립을 복원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검룡소 입구 쉼터공원과 옛길복원구간도 기존의 진입로는 그대로 놓아둔 채 또 하나의 동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검룡소라는 원시경관구역임을 감안 원형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든가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는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전 문화재위원 >

- 옛길복원계획은 좁고 협소한 계곡에 기존의 진입로와 중복하여 길을 만드는 사업으로 한강의 발원지라고 일컫는 검룡소 경관의 원시성, 순수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두 개의 길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계획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일부 구간이 크게 훼손된 상태로서 이구간의 정비 및 도로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야생화공원 및 쉼터공원은 자연 상태의 임상이 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연수림지로 복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야생초화의 도입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줄여 자연스러운 한강의 발원지 경관이 되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바. 참고자료(*** 의견)

- 본 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자연재해 및 잦은 탐방객들로 인하여 훼손된 생태탐방로를 보수·정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가치제고와 함께 탐방객들에게 생태체험, 관찰,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자연학습장의 역할을 마련하기 위함.

사. 의견사항 : 부결

14. 「백악산 일원」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변 이동통신용 전주설치

가. 제안사항

「백악산 일원」 지정구역 내 도로변 이동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백악산 일원」 지정구역 내 도로변(북악스카이웨이) 이동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7호 백악산 일원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산2-27번지 등
 - 지정일 : 2009. 12. 0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이동통신용 전주 설치
 - 사업위치 : 종로구 평창동 산6-59번지외 2필지
 - 사업내용 : 이동통신용 전주 4개소 설치
 - 전주 높이 6m, 점유면적 1㎡(4개소×0.25㎡)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6.31일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이동통신용 전주 설치하는 것은 휴대폰의 통화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백악산 일원 명승 구역을 통과하는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변에 각종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등이 이미 설치된 지역으로 백악산 전체 경관을 볼 때 각종 도로변 시설물 설치로 조망경관을 해치고 있어, 최소한의 전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기존의 한국전력의 전주를 활용할 수 있으면 기 설치된 전주를 활용함이 옳다고 판단됨.

마. 현지조사 의견 (2012.11.21)

< *** 전 문화재위원 >

- 신청 사업은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내를 통과하는 도로변에 통신용 전주 4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 현재 도로변에는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전주가 노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공시설이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임.
- 현지조사 결과, 신청한 사업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이 입증되면, 가능한 기존의 한국전력의 전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별도로 전주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라도 통합이용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개소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15. 「봉화 청량산」 내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봉화 청량산」 지정구역 내 단독주택을 신축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봉화 청량산」 지정구역 내 단독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23호 봉화 청량산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 74-1번지 외
 - 지정일 : 2007. 3. 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번지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토지면적 : 660㎡
 - 건축면적 : 75.08㎡
 - 연면적 : 75.08㎡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8.31일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2012.11.1 *****의 1명)

○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지역은 이미 기존의 주택들이 오래되어 폐가 형태로 방치된 지역으로 향후 철거하여 청량산의 경관개선을 위해 필요하며,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청량사와 청량산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16.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해안 침식방지용 수중 잠제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산방산」 주변 해안 침식방지용 수중 잠제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서귀포 산방산」 전면 해안 침식방지용 수중 잠제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일원
 - 지정일 : 2011. 6. 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주 서귀포 산방산」 산방산 전면 해안 침식방지용 수중 잠제 설치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일원
 - 추진경과 : 2012.7.25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
 - 부결사유 :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의 보존에 영향이 우려되는 바, 시설물 설치로 인한 문화재 영향 평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재신청.
 - 사업내용
 - 잠제 시설면적 : 16,000㎡(200m×40m : 2기)
 - 사업비 : 652억원(잠제설치 136억원)
 - 사업기간 : '12.12월~'17. 12월(5년)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209m

라. 검토의견(*****)

○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전면 해안 침식방지용 수중 잠제 설치 사업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에 미치는 문화재영향 검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치모형실험 결과, 전문가(관동대학교 *** 교수)의견으로 “산방산 전면에 수중잠제를 설치했을때 용머리 해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이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 의견)**

- 의림지와 제림은 제천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문화재로서, 연간 100만명의 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 우륵은 가야의 사람이지만 우륵이 의림지를 축조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우륵대는 한진호의 의림지 소고와 충청도읍지, 제천현지, 제천군지에도 우륵이 가야금을 탄 곳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1960년대 건축물의 신축에 따라 매몰되었던 우륵대를 복원하고자 하며
- 동 사업은 의림지의 원형을 찾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원형보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기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바. 의결사항 : 부결

ㄱ 권툑쌔뵡

천기 2012-08-18

18.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보호구역 지정

가. 제안사항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이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의 상록수림 보호와 후계목 양성을 통한 수림지 확장을 유도하고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보령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36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 소재지/지정면적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293번지/32,295㎡
 - 지정일 : 1962. 12. 7.
- (3) 신청내용 : 천연기념물 제136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보호구역 지정
 - 보호구역 지정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292번지등 46필지(73,731㎡)
 - ※ 세부내역 : 따로 붙임

라. 검토의견 (***)**

- 태풍등 자연재해의 상습적 피해에 따른 문화재 보존을 위한 후계목 양성과 수림지 확장을 유도하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은 상록수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 현지조사 의견(2012. 6. 20)
- < ***,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
 -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보호구역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 추진토록 하고, 보호구역 설정은 가급적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확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유지를 포함한다. 동건은 보호구역 면적 조정 및 편입 토지 조서를 확정된 연후 위원회에 상정 처리키로 한다.

○ 서면검토 의견(2012. 12. 14)

< *** 문화재위원 >

- 외연도 상록수림은 2012. 6. 20. 현지답사에서 지정구역내의 상록수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록수림 지정 구역 외곽에 완충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음.
- 따라서, 현재의 지정구역 외곽에 보호구역을 설정한다는 관리당국의 계획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이에 동의하고, 가급적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동의하는 사유지를 포함하여 보호구역 면적 조정 및 편입조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바 있음
- 이에 따라 보령시는 외연도 상록수림의 보호구역 설정계획을 작성(2012.11)했고, 이 계획안을 서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음
- 계획된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선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현지에서 보호구역 경계를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러므로, 가급적 외곽 경계선의 굴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를 계속해 주기 바람.
- 특히 상록수림의 동쪽 57전, 58전, 61전, 64전, 산75임(준보전산지)등이 보호구역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해당 토지 소유자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음.

< *** 문화재위원 >

- 본 상록수림은 토착신앙이 강해 숲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오랫동안 잘 보존되어 왔던 곳이나 인구의 유입 등으로 지정 이전부터 수림지가 훼손(개간 등)되거나 생육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짐작됨.
- 이러한 환경속에서 상록수림지의 복구와 후계목 양성, 각종 재해(태풍, 산불)등의 목적으로 수림지 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사유지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일부 경계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므로 향후 돌출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중요한 상록수림이 효율적으로 보존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상록수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은 필요성이 매우 큼
- 현 계획상의 보호구역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며, 특히 대부분의 필지가 국·공유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함.
-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상록수림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위치이며, 면적이 크지도 않으므로 원안대로 포함하는 것이 좋음
- 가능하다면 지번 223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보호구역 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주소	성 명	
1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293	임	79,568	47,273		국(문화재청)	
2		59	전	357	357		보령시	
3		60	전	145	145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	***	
4		62	전	2,050	2,050		보령시	
5		63	전	1,104	1,104		보령시	
6		70	전	1,068	1,068		보령시	
7		71	대	456	456	경기도 동두천시 결산동 **	***	
8		72	대	374	374		보령시	
9		73	전	159	159		보령시	
10		74	전	175	175		보령시	
11		75	전	1,265	1,265		***	
12		84	전	569	569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	***	
13		199	전	460	460		보령시	
14		200	대	390	390		보령시	
15		201	답	30	30		보령시	
16		202-1	전	154	154		보령시	
17		204	전	188	188		보령시	
18		205	대	367	367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	***	
19		206	학	129	129		보령시	
20		207	대	1,048	1,048		보령시	
21		208	대	502	502		보령시	
22		209	대	684	684		보령시	
23		210	대	1,035	1,035		보령시	
24		211	대	274	274		보령시	
25		212	대	793	793		보령시	
26		213	대	1,150	1,150		보령시	
27		214	대	231	231		보령시	
28		215	대	764	764		보령시	
29		216	대	1,081	1,081		보령시	
30		222	전	721	721		보령시	
31		231	전	116	116		보령시	
32		232	전	238	238		보령시	
33		233	전	208	208		보령시	
34		250	전	826	826		보령시	
35		251	전	813	813		보령시	
36		252	전	245	245		보령시	
37		253	전	288	288	보령시 대천동 618-152 남동연립 나동 ***호	***	
38		254	전	410	410		보령시	
39		263	전	245	245		보령시	
40		264	전	430	430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210	****	
41		265	전	1,296	1,296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32	***	
42		266	전	1,570	1,570		보령시	
43		279	전	215	215		보령시	
44		280	전	258	258		보령시	
45		282	전	770	770		보령시	
46		288	전	807	807		보령시	
합계				106,026	73,731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19.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0.9.20 포천시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명승 지정 신청
 - '12.10.16 지정조사 실시 (문화재 위원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포천시청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574-1번지 등 일원
- 문화재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한탄강변을 따라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수려한 경관을 보여줌.
 - 명우리 주상절리는 한탄강의 대부분 협곡과 달리 하식에 양안이 모두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협곡으로 높이는 20~30m 내외이며 길이는 약 4km임. 협곡 구간에는 주상절리의 침식과 박리로 인한 소형 하식동굴이 약 30여기 이상 형성되어 있음.
 - 명우리 협곡은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와 상부의 제4기 현무암질 용암류 사이의 부정합 구조, 주상절리(柱狀節理·뜨거운 액체 용암이 식어 굳을 때 부피가 수축되면서 돌기등을 나란하게 세워 놓은 모양으로 발달한 절리), 하식에(河蝕崖·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생긴 높은 절벽), 고토양층의 발달 과정 등을 관찰할 수 있어 지질·지형학적인 가치가 우수함.

- 주상절리 협곡 길이가 약 4km에 달해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연상시킬 만큼 풍광이 뛰어나. 그리고 협곡 하단부에는 하천의 물이 흐르면서 계곡의 벽 중 약한 부분을 침식시켜 만들어진 하식동굴이 약 30기 이상 형성되어 있음.

○ 문화재구역 : 58필지 / 727,448㎡

○ 문화재관리단체 : 포천시

라. 문화재현황

【입지현황】

-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부터 ~ 관인면 사정리까지 주상절리 협곡 길이가 약 4km에 달해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연상시킬 만큼 풍광이 뛰어나며, 침식과 박리로 인한 소형 하식동굴 등이 형성되어 있음.

【지형·지질 현황】

- 한탄강은 신생대 말기에 해당하는 제4기에 북한 평강 오리산 북쪽 640m 고지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류가 추가령 구조선을 따라 흘러 형성한 용암대지에 풍화 및 침식작용에 의해 하천과 협곡이 이루어졌음.
-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일대의 지질은 선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류를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류가 관입하고 지표에 노출된 이후, 신생대 제4기에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류(熔岩流)가 부정합을 이루며 피복하고 있음.
- 명우리 협곡 지역을 흐르고 있는 한탄강의 하식작용으로 각 암석의 차이와 각 암석에 발달한 절리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하식지형들이 계곡을 따라 연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음.
- 현무암질 용암류가 분포된 하안(河岸)은 주상절리나 hackly fracture(들쭉날쭉하게 갈라진 것)가 발달한 수직의 하식절벽이나 하식동(河蝕洞) 등이 발달하였고, 변성암류나 화강암류가 발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사의 하안을 이루며 노두들이 돌출되어 있음.

【인문 및 자연경관 현황】

- 협곡의 주상절리에는 30여 개 이상의 크고 작은 하식 동굴이 있으며, 주상절리에는 다양한 식생이 발달하여 가을철 단풍이 짙게 물들면 굽이쳐 흐르는 협곡의 곡류와 어울려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만듦.

마. 검토의견 (***)**

- 한탄강 명우리 협곡은 한탄강의 대부분 협곡과 달리 하식에 양안이 모두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는 협곡으로 높이는 20~30m 내외, 길이는 약 4km에 달해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연상시킬 만큼 풍광이 뛰어나며, 주상절리와 침식과 박리로 인한 소형 하식동굴 등이 형성된 협곡으로 지형·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 국가 명승 지정가치가 높음.

바. 지정조사 의견('12.08.20)

<문화재위원장 *>**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 일원에 소재하는 한탄강 명우리 협곡은 한탄강 중류에 위치하며 강의 양안이 번갈아가며 현무암의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이루고 길이 4 km가 넘는 긴 협곡이 이어져 있다. 명우리라는 말은 협곡이 높이 20-30m의 주상절리 직벽을 끼고 입구가 나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져서 몸에 명우리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협곡의 주상절리에는 30여 개 이상의 크고 작은 하식 동굴이 발견되며 아름다운 식생이 발달하고 완만하게 곡류하는 하천으로 인하여 하식에와 고토양층이 발달하여 지형, 지질학적 연구의 좋은 대상이 되고 있다.
- 이 협곡은 1990년대 초부터 국가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과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오랜 기간 훼손 없이 남겨져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레프팅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일천이 유입되는 지점 부근 하천이 급경사로 굽어지는 지역부터 철거 예정인 물막이 댐 건설지 이전까지의 약 4 km 전후를 국가지정 명승지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위원 *>**

-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은 신생대말기에 해당하는 제4기에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류가 흘러 형성한 용암대지에 풍화 및 침식작용에 의해 아름다운 협곡이 이루어졌다.
- 명우리 주상절리는 높이가 20-30m내외, 길이가 약 4km 정도로 굽이쳐 흐르는 곡류가 안쪽과 바깥쪽으로 서로 비대칭을 이루면서 하천을 이루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으며, 협곡 곳곳에 주상절리의 침식과 박리로 인한 소형 하식동굴이 약 30여기 이상 형성되어 있어 신비감 마져 연출한다.
- 또한 이 지역은 1990년대초부터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지형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왔으므로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 따라서 한탄강 명우리 협곡은 이곳지역의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관리 활용해야하며,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명승으로 적극 추천한다

<문화재위원 *>**

- 포천 한탄강 명우리 협곡 일대의 지질은 선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류를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류가 관입하고 지표에 노출된 이후, 신생대 제4기에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류(熔岩流)가 부정합을 이루며 피복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흐르고 있는 한탄강의 하식작용으로 각 암석의 차이와 각 암석에 발달한 절리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하식지형들이 계곡을 따라 연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음.
- 즉, 현무암질 용암류가 분포된 하안(河岸)은 주상절리나 hackly fracture(들쭉날쭉하게 갈라진 것)가 발달한 수직의 하식절벽이나 하식동(河蝕洞) 등이 발달하였고, 변성암류나 화강암류가 발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사의 하안을 이루며 노두들이 돌출되어 있음.
- 따라서 지질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하식지형의 발달, 맑은 한탄강, 울창한 수목 등이 어우러져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어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 57필지 727,448㎡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주소	소유자	비고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697-3	천	30,840	30,840		국(국토해양부)	
	697-4	천	189	189		국(국토해양부)	
	701-2	묘	1,629	200		국(국토해양부)	분할
	795-2	천	16,408	16,408		국(국토해양부)	
	795-1	천	1,915	1,915		국(국토해양부)	
	789-10	천	29,358	29,358		국(국토해양부)	
	787-2	전	346	346		국(국토해양부)	
	789-12	천	1,361	1,361		국(국토해양부)	
	785-10	천	7,335	7,335		국(국토해양부)	
	785-8	천	6,854	6,854		국(국토해양부)	
	785-6	천	5,198	5,198		국(국토해양부)	
	785-9	천	2,755	2,755		국(국토해양부)	
	785-7	천	2,270	2,270		국(국토해양부)	
789-8	천	5,365	5,365		국(국토해양부)		
포천시 관인면	산574-1	천	355,433	160,894		국(국토해양부)	분할
	산327-1	임	12,565	3,200		국(국토해양부)	분할

사정리	산574-2	천	505	505	국(국토해양부)	
	산574-3	천	731	731	국(국토해양부)	
	산574-4	천	300	300	국(국토해양부)	
	산574-5	천	981	981	국(국토해양부)	
	산583	천	58,090	58,090	국(국토해양부)	
	산455-1	입	26,188	26,188	국(국토해양부)	
	산455	입	225,019	2,800	***	분할
	산457	입	16,775	16,775	국(국토해양부)	
	산457-1	입	4,547	4,547	국(국토해양부)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산584	천	2,441	2,441	국(국토해양부)	
	산3-7	입	7,236	7,236	국(국토해양부)	
	산3-8	입	620	620	국(국토해양부)	
	산3-9	천	167,370	167,370	국(국토해양부)	
	산1-1	입	15,607	15,607	국(국토해양부)	
	산3-10	천	2,145	2,145	국(국토해양부)	
	산3-5	천	1,485	1,485	국(국토해양부)	
	산144-6	입	13,654	13,654	국(산림청)	
	산145-7	입	3,672	3,672	국(국토해양부)	
	산346-4	전	3,569	3,569	국(국토해양부)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146-1	입	2,777	2,777	국(국토해양부)	
	산178-4	입	19,648	19,648	국(국토해양부)	
관인면 중리	산178-3	천	4,410	4,410	국(국토해양부)	
	산42-1	천	15,440	15,440	국(국토해양부)	
	산99-1	입	18,734	18,734	국(국토해양부)	
	산100-1	전	13,953	13,953	국(국토해양부)	
	산101-1	전	1,645	1,645	국(국토해양부)	
	산102	전	1,190	1,190	국(국토해양부)	
	산93-1	입	330	330	국(국토해양부)	
	산103	전	694	694	국(국토해양부)	
	산105-1	입	344	344	국(국토해양부)	
	산104	전	793	793	국(국토해양부)	
	산93	입	50,744	480	국(국토해양부)	분할
	산107-2	입	2,124	2,124	국(국토해양부)	
	산106-2	입	82	82	***	
	산107-1	입	747	747	국(국토해양부)	
	산106-1	입	18,563	18,563	국(국토해양부)	
	산106	입	8,077	8,077	***	
	산106-3	입	55	55	***	
산123-4	입	3,468	3,468	국(국토해양부)		
산128	입	1,190	1,190	국(국토해양부)		
산107	입	91,741	7,500	***	분할	
산105	입	12,945	2,000	***외 3인	분할	
합 계	58필지					

사. 참고자료<*** 의견>

- 한탄강 멩우리 협곡은 한탄강 중류에 속하는 지역으로 하식에 양안 모두 주상절리 등으로 이루어진 협곡이다. 또한 주상절리 협곡 길이가 약 4km에 달해 한국의 그랜드 케니언을 연상시킬 만큼 풍광이 뛰어나다. 그리고 협곡 하단부에는 하천의 물이 흐르면서 계곡의 벽 중 약한 부분을 침식시켜 만들어진 하식동굴이 약 30기 이상 형성되어 있다.
- 멩우리 협곡을 비롯한 포천한탄강은 90년대 초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체의 훼손이 없는 원지형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환경 및 경관적 가치가 매우 크다.

아. 의결사항 : 원안검토

20. 「청송 주산지(靑松 注山池) 일원」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청송 주산지」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송 주산지」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2.9.16. 청송군 「청송 주산지」 명승 지정 신청
 - '12.11.01. 지정조사 실시 (***·***·*** 문화재위원)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청송군수
-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청송 주산지(靑松 注山池) 일원」
- 소재지 : 청송군 뽕뫼 뽕뫼뫼 41-1 뚝 9畓
- 문화재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주산지는 조선 숙종(1720년) 8월에 착공하여 그 이듬해인 경종원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주산지 입구 바위 위에 주산지 제언(堤堰)에 공이 큰 월성이씨 이진표(李震杓)공의 공덕비가 영조 47년(1771년) 후손들과 조세만(趙世萬)에 의해 세워져 있음.
 - 저수지는 그리 작지는 않지만 입구가 협곡이며, 축조 당시 규모는 주위가 1천1백80척 수심 8척이라고 전하며, 수차의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는 제방길이 63m, 제방높이 15m, 총저수량 105천톤, 관개면적 13.7ha임.
 - 주산지 맑은 물은 주산현(注山峴) 꼭대기 별바위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흘러 주산지에 머무르고 주왕산 영봉에서 뻗친 울창한 수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물위에 떠 있는 듯한 왕버들과 어우러져 별천지에 온 것 같이 한적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라서 한동안이나마 속세를 잊고 휴식을 취하기에는 그지없는 곳임.

- 또한 이 호수는 준공 이후 아무리 오랜 가뭄에도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고 호수 속에는 약 200년생 능수버들과 왕버들 20여 그루가 물속에 자생하고 있어 그 풍치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음.
- 비온 뒤의 청아(清雅)한 풀잎과 저수지의 비경, 별바위를 지나가는 낮은 구름과 안개, 단풍과 저녁놀이 그리고 저수지의 경관, 주위 활엽수와 소나무, 저수지, 바위가 어우러진 광경 등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치와 뛰어난 사계절 비경을 보여줌.
- 문화재구역 : 9필지 / 2,417,996㎡
- 문화재관리단체 : 청송군

라. 문화재현황

【입지현황】

- 주왕산 계곡에서 남서쪽 이진리 마을에서 약 3km 거리에 있으면서 주왕산 영봉에서 뻗어 나온 자락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은 좌우로 연이어 솟아난 산줄기로 첩첩산중의 별천지 같은 모습, 울창한 수림과 탁 트인 저수지, 사시사철 특색있는 멋진 풍광으로 둘러싸여 한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냄.
- 주산현(注山峴) 꼭대기 별바위 아래로는 여러 갈래의 물길이 모여 아름다운 큰 계곡을 이루고 숨차게 밀려온 물길은 인간이 만들어낸 저수지에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수백 년 된 왕버들을 물속으로 끌어안고 병풍처럼 펼쳐진 주변 풍광을 물위에 새겨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합작품을 만들어 냄.

마. 검토의견 (*****)

- 주산지와 별바위를 배경으로 하는 주변 풍광은 자연경관과 제방 인공축조물이 함께 어우러져 신비로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관적·학술적·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명승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바. 지정조사 의견('12.08.20)

<문화재위원 ***>

- 청송주산지는 주산현(注山峴) 꼭대기 별바위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물이 흘러 주산지에 머무르고 주왕산 영봉에서 뻗쳐내려온 울창한 수림으로 둘러싸여있으며, 물위에 떠있는 듯한 왕버들과 어우러져 별천지에 온 것같이 아늑하고 은은하며 아름다워서 마음의 청정함을 느끼게 해준다.
- 또한 비온 뒤 청아한 풀잎과 저수지의 아름다운 정경, 멀리보이는 별바위와 주변 산 능선, 능선아래 펼쳐지는 산림식생들의 단풍 물결, 아침안개가 끼었을 때 무릉도원 같은 풍경과 저녁노을의 고즈넉한 정경은 자연명승으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 저수지는 수위가 높아지면 수중에 잠긴 왕버들의 모습이 물위에 떠 있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 따라서 동 대상지는 저수지의 단순히 경관 뿐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함께 녹아 있어 보존, 활용되어야 함은 물론 경관적, 학술적 가치도 높다.
- 근거기준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명승 지정기준에 명시된 “4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그리고 5. 생활과 관련된 경승지 중 나. 역사성이 있는 “저수지”에 해당되므로 가치 기준을 충족한다.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주산지의 중요한 요소는 인공으로 조성된 저수지와 주변경관이라 할 수 있으나 일반인들은 저수지의 물과 왕버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왕버들은 원래 저수지 주변에 있었으나 1990년 이후 주산지 수위를 8m 이상으로 높이면서 물에 잠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왕버들은 나이가 많아 환경조건의 변화(수변→수중)로 수세가 매우 쇠약해지고 가지나 줄기 일부가 이미 많이 훼손된 것이 안내판 사진과도 비교될 정도이다. 이러한 원인은 뿌리에서 산소호흡이 어려워져 물속 용존산소를 흡수하기 위해 지체부 주변에 기근(氣根)을 발생하였지만 자연 현상에서가 아니라 농업용수 공급 목적에 따라 수위가 조절되는 현실에서는 수목이 갖는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다.
 - 수변식물이 수중에 잠겨 생존하는 사례는 미국 미시시피강의 낙우송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늪지대나 댐으로 수몰지역의 버드나무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나 대부분 현지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 따라서 동 왕버들은 향후 학술조사 및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 현 왕버들의 유지는 물론 후계목의 육성에 관한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 9필지 2,417,996㎡

순서	종류	종류	면적(㎡)	종류(㎡)	종류	종류	종류
1	73	정	19,666	19,666	정 50	정	정
2	1594	등	1,428	1,428	정 50	정	정
3	74	등	274	274	정 50	정	정
4	48-3	정	6,291	1,555	정 40	정	정
5	72	등	344	344	정 40	정	정
6	1595	정	152	152	정 40	정	정
7	127	정	6,845	6,845	정 40	정	정
8	41-1	정	4,553,075	1,195,573	정 40	정	정
9	48-1	정	3,305,908	1,192,159	정 40	정	정
합				2,417,996			

아. 참고자료<* 의견>**

- 주왕산 주산지는 국립공원 주왕산 내에 위치하며 주산지는 조선 숙종(1720년) 8월에 착공하여 그 이듬해인 경종원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주산지 입구 바위 위에 주산지 제언(堤堰)에 공이 큰 월성이씨 이진표(李震杓)공의 공덕비가 영조 47년(1771년) 후손들과 조세만(趙世萬)에 의해 세워져 있다.
- 저수지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입구가 협곡이라 저수지 축조에 인력과 노력이 절감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축조 당시 규모는 주위가 1천1백80척 수심 8척이라고 전하며, 수차의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는 제당길이 63m, 제당높이 15m, 총저수량 105천톤, 관계면적 13.7ha이다.
- 주산지 맑은 물은 주산현(注山峴) 꼭대기 별바위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흘러 주산지에 머무르고 주왕산 영봉에서 뺀 울창한 수림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물위에 떠 있는 듯한 왕버들과 어우러져 별천지에 온것 같이 한적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라서 한동안이나마 속세를 잊고 휴식을 취하기에는 그지없는 곳이다. 또한 이 호수는 준공 이후 아무리 오랜 가뭄에도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고 호수 속에는 약 200년생 능수버들과 왕버들 20여 그루가 물속에 자생하고 있어 그 풍치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으며, 능수버들은 제언 당시는 독에 자생하였으나 그 후 제당을 높임에 따라 물속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 비운 뒤의 청아(清雅)한 풀잎과 저수지의 비경, 별바위를 지나가는 낮은 구름과 안개, 단풍과 저녁놀 그리고 저수지의 경관, 주위 활엽수와 소나무, 저수지, 바위가 어우러진 광경 등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치로 인해 사계절 사진작가, 화가, 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비경으로 인해 가족휴양은 물론 영화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다만 주산지내 왕버들이 물속에 잠겨 있어 현재는 고사가 많이 진행중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 의결사항 : 원안검토

21.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飛龍瀑布 溪谷 一圓)」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1.3~11.11월 2011년 지형·지질 문화재 자원조사 연구
 - 인제군 대승폭포 : 지형·지질학적·경관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음
 - ‘11.11~12.2월 2012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역사자원조사 학술연구
 - 설악산 자연문화유산 관련 유람기·시문·전승 구비문화이 많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
 - ‘12.3~12.9월 2012년 고서화·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자원 발굴조사
 - 울산바위 : 지형·지질학적·경관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음
 - 지정조사
 - ‘12.9.7 / 10.9 지정조사 계획보고
 - ‘12.9.12.~9.14. :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대승폭포, 십이선녀탕, 수렴동·구곡담 계곡, 비선대·천불동계곡(6개소)
 - ‘12.10.11.~10.12. : 울산바위, 공룡능선, 용아장성, 만경대(4개소)
 - 관계전문가 : 이인규 문화재위원장, 이재근·이광춘·황재하 문화재위원, 김학범 전 문화재위원
 - ‘12.11. 22. 지정추진계획보고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飛龍瀑布 溪谷 一圓)」
 -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 지정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비룡폭포는 외설악지역(外雪嶽地域)을 배수하여 동해로 흘러드는 쌍천(雙川)의 지류가 화채봉(華彩峰)의 북쪽 기슭에 만들어놓은 폭포임. 비룡폭포는 토왕골계곡의 하류 쪽에 육담폭포(六潭瀑布)와 상류 쪽에 토왕성폭포(土旺城瀑布)의 중간 지역에 있으며, 폭포수 모양이 마치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비경을 보여줌.
- 비룡폭포는 기반암하천인 산지하천에 해당함. 비룡폭포가 있는 하천은 토왕골이며, 폭포의 높이는 16m, 폭포 경사도는 44°, 폭포가 위치한 고도는 370m, 폭포의 너비는 16m임. 비룡폭포는 설악산에 발달한 다양한 지형경관 중 하나이며, 설악산의 암질차이와 절리 발달은 귀면암, 울산암 등과 같은 기암을 형성하거나 절리방향에 따르는 차별침식으로 폭포, 구혈, 급류, 소 등의 하천지형을 형성함
- 육담폭포, 비룡폭포, 토왕성폭포가 발달하고 있는 토왕골은 백악기에 관입한 설악산 화강암이 오랜 세월을 걸쳐 용기·풍화·침식·운반작용을 받아 폭포, 폭호, 뽕족한 암봉, 담소, 협곡, 암석하상, 자갈하상 등의 하식지형이 발달한 독특한 화강암 지형으로 경관이 매우 수려함.
- 육담폭포를 지나 1km 정도 올라가면 높이 약 16m의 힘찬 물줄기가 내리꽂히며 골짜기를 울리는데 폭포소리가 무상무념의 경지에 이르게 함.
- 문화재구역 : 1필지 / 215,000㎡
- 문화재관리단체 : 속초시

라. 문화재현황

【 입지현황 】

- 속초시 설악동에 위치하는 비룡폭포와 육담폭포는 외설악 지역을 배수하여 동해로 흐르는 쌍천 지류를 따라 화채봉 북쪽 기슭에 만들어진 높이 약 16m를 이루는 폭포임.
- 속초시 설악동에 위하는 비룡폭포는 토왕골계곡의 6개의 폭포와 크고 작은 담과 소로 이루어진 육담폭포를 지나 1km 정도 오르면 비룡폭포가 있으며, 마치 용이 암벽을 타고 굽이쳐 하늘로 비상하는 듯한 절경을 보여줌.

【 지형·지질 】

- 선캄브리아기 편마암류와 이를 관입한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류, 그리고 상류에는 이들과 부정합을 이루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류와 다시 이들 모두를 관입한 백악기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함.

- 비룡폭포는 설악산에 있는 폭포로서 설악산의 지형형성과정과 그 시점이 맞물려 있다. 비룡폭포의 기반암인 설악산화강암은 중생대 말인 백악기 초엽 즉 약 2억 1천만 년 전에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를 관입한 암석이다. 지질형성 결과 토왕골이 발달하였고 지질학적 기준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침식이 진행되고 있다. 침식과 풍화는 곳곳에 발달된 절리를 따라 이루어지며 절리에 의해 암석들은 차별침식을 받고 다채로운 경관을 형성함.

【 유래 및 전설 】

- 유래전설에 의하면 폭포수 속에 사는 용에게 처녀를 바쳐 하늘로 올려 보냄으로써 심한 가뭄을 면하였다고 해서 ‘비룡’이라 불렀다고 함.
- 육담폭포는 6개의 폭포와 담(潭)이 있다고 붙여진 이름임.
- 육담폭포, 비룡폭포, 토왕성폭포가 발달하고 있는 토왕골은 속초시 설악동에 속한다. 백악기에 관입한 설악산 화강암이 오랜 세월을 걸쳐 용기·풍화·침식·운반작용을 받아 폭포(육담폭포,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폭호, 뽕죽한 암봉, 담소, 협곡, 암석하상, 자갈하상 등의 하식지형이 발달한 독특한 화강암 지형으로 경관이 매우 수려함.

【 자연 경관 】

- 육담폭포의 크고 작은 담과 소가 토왕골 계곡을 따라 비룡폭포를 정점으로 비경을 연출하며, 주변지형과 계곡, 담과 소, 식생들이 숲속길을 따라 계속 이어져 절경을 이루는 설악산의 대표적인 폭포로서 명승적 가치가 뛰어나.
- 천불동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가 주변 암봉들아래 이리저리 휘어지며 작은 폭포를 이루는 모습은 금강산의 만폭동에 못지않은 경관을 빚어냄.

【 옛 문헌자료 】

- 김창흡(金昌翕), 「설악일기(雪岳日記)」 김몽화(金夢華), 「유설악록(遊雪嶽錄)」에 설악산 일대를 유람하며 유람기에 감상한 설악산의 비경을 묘사함.

마. 검토의견 (***)**

- 비룡폭포 계곡일원에는 육담폭포의 크고 작은 담과 소가 토왕골 계곡을 따라 비룡폭포를 정점으로 비경을 연출하며, 주변지형과 계곡, 담과 소, 식생들이 숲속 길을 따라 계속 이어져 절경을 이루는 설악산의 대표적인 폭포로서 명승적 가치가 뛰어나.
- 천불동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가 주변 암봉들아래 이리저리 휘어지며 작은 폭포를 이루는 모습은 금강산의 만폭동에 못지않은 경관을 빚어내어 경관이 뛰어나.

바. 지정조사 의견('12.9.12~14)

<문화재위원* *>**

- 속초시 설악동에 위치하는 비룡폭포는 외설악 지역을 배수하여 동해로 흐르는 쌍천 지류를 따라 화채봉 북쪽 기슭에 만들어진 높이 약 16 m가 되는 폭포이다.
- 이 폭포는 그속에 사는 용에게 처녀를 바쳐 용이 승천하여 가뭄을 면하게 되었다는 전설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 비룡폭포는 설악산에 발달한 다양한 지형 경관 중의 하나로서 침식과 풍화로 곳곳에 발달한 절리를 따라 차별 침식을 받고 발달한 폭포들로 다채로운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설악산의 지형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지정 명승으로 추천함에 의의가 없다.

<문화재위원 *>**

- 설악산 비룡폭포는 토왕골 계곡의 육담폭포와 토왕성폭포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포수의 모양이 마치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 비룡폭포는 외설악지역의 화채봉 기슭에 만들어진 폭포로서 주변지형과 계곡, 소와 담, 식생들이 탐방로를 따라 지속적으로 이어져 절경을 이루는 설악산의 대표적인 폭포로서 명승적 가치가 뛰어나다 할 수 있다.
- 유래전설에 의하면 폭포수속에 사는 용에게 처녀를 바쳐 하늘로 올려 보냄으로써 심한 가뭄을 면하였다고 해서 비룡이라 불렀다고 하며, 높이 16m, 고도는 370m, 폭호의 너비 16m의 중생대말인 백악기 초엽 약 2억1천만년 전에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를 관입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 비룡폭포의 명승지정범위는 육담폭포입구에서부터 비룡폭포의 상단부까지 소와 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계곡일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화재위원 *>**

- 육담폭포, 비룡폭포, 토왕성폭포가 발달하고 있는 토왕골은 속초시 설악동에 속한다. 백악기에 관입한 설악산 화강암이 오랜 세월을 걸쳐 용기·풍화·침식·운반작용을 받아 폭포(육담폭포,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폭호, 뽕죽한 암봉, 담소, 협곡, 암석하상, 자갈하상 등의 하식지형이 발달한 독특한 화강암 지형으로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 세 개의 폭포 중에서 제일 하류에 있는 육담폭포는 6개의 폭포와 담(潭)이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고, 비룡폭포는 험준한 산길을 따라 마치 용이 암벽을 타고 굽이쳐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높이 약 15m, 폭호의 장경은 약 20m이다.
- 육담폭포, 비룡폭포, 토왕성폭포로 이어지는 토왕골은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매우 크다.

○ 문화재가치

- 토왕성 폭포는 외설악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적봉 남쪽 토왕골에 있음. 토왕성은 『여지도서』 『양양도호부』 고적조에 “토왕성(土王城) 부(府)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음. 성을 돌로 쌓았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음. 세상에 전해오기를 옛날에 토성왕이 성을 쌓았다고 함. 폭포가 있는데, 석벽사이로 천 길이나 날아 떨어진다.”고 기록됨.
- 『양양부읍지』 에도 같은 기사가 실려 있는데, 모두 토왕성으로 되어 있음.
- 토왕성폭포는 화채보에서 흘러 칠성봉을 끼고 돌아 상단150m, 중단80m, 하단90m로 총 길이가 320m의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연폭(連瀑)으로 하늘에서 비류하는 광경은 천상의 절경임. 마치 선녀가 흰 비단을 바위 위에 늘어놓은 듯이 아름답기 그지없음.
- 폭포의 물은 토왕골을 흘러 비룡폭포와 육담폭포와 합류 쌍천(雙川)으로 흐름.
- 설악산을 대표하는 3대 폭포 중의 하나임.

○ 문화재구역 : 1필지 / 338,740㎡

○ 문화재관리단체 : 속초시

라. 문화재현황

【 입지현황 】

- 외설악 비룡폭포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폭포로서, 화채봉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폭포임.
- 현재 토왕성폭포는 비공개지역이며, 경관조망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320m의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연폭(連瀑)은 매우 경탄할 만한 경치를 보여줌.

【 지형·지질 】

- 토왕성폭포 일대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 편마암류와 이를 관입한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류, 백악기의 퇴적암류와 화성암이 구성됨.

【 유래 및 전설 】

- ‘토왕성(土王城)’이란 이름은 오행설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의미는 토기(土氣)가 왕성하므로 기암괴봉이 발달하여 마치 폭포를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며, 석가봉, 문수봉, 보현봉, 노적봉, 취적봉, 문필봉 등의 기암괴봉 등이 발달하여 폭포를 둘러싸고 있음.
- 『여지도서』 『양양도호부』 고적조에 “토왕성(土王城) 부(府)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성을 돌로 쌓았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옛날에 토성왕이 성을 쌓았다고 한다. 폭포가 있는데, 석벽사이로 천 길이나 날아 떨어진다.”고 기록됨. 일명 신광폭포(神光)폭포라고 함.

【 자연 경관 】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및 설악산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생물의 분포서식지로서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
- 설악산 내 외설악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제328호 하늘다람쥐·제330호 수달이 서식
- 토왕성폭포는 대승폭포, 독주폭포(만장폭포)와 함께 설악산을 대표하는 3대 폭포의 하나로서 주변의 기암절벽과 총320m의 연폭에서 흘러 뿌러지는 폭포수는 하얀 물보라와 함께 무지개를 수놓아 마치 선녀가 흰 비단을 바위 위에 늘어놓은 듯하여 선경(仙景)을 보여줌.

【 옛 문헌자료 】

- 성해옹(成海應 : 1760~1839)의 「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에서 토왕성폭포의 웅장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함.
“토왕성 폭포는 식당 아래 10여리에 있다. 커다란 절벽이 구름에 닿아 있는데, 폭포는 그 가운데를 쪼개고 흐른다. 내려갈수록 더욱 기이하고 웅장하다. 동쪽으로 바다와의 거리가 20리는 된다.”
- 김창흠(金昌翕 : 1653~1722)의 「설악일기(雪岳日記)」에서 토왕성폭포를 중국의 ‘여산’보다 낫다고 표현함.
“폭포가 넓은 절벽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 흐르는데 형세가 매우 기이하고 웅장하였다. 만약 그 북쪽 산등성이에다 관람용 누대를 만든다면 위로 솟구쳐 부는 바람만 이보다 아래이지는 않을 것이다.(대가 높아 모든 것이 대 아래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비록 ‘여산’이라도 또한 이곳보다 만드시 낫지는 않을 것이다”

마. 검토의견 (*****)

- 토왕성폭포는 화채보에서 흘러 칠성봉을 끼고 돌아 상단150m, 중단80m, 하단90m로 총 길이가 320m의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연폭(連瀑)으로 하늘에서 비류하는 광경은 천상의 절경임. 마치 선녀가 흰 비단을 바위위에 늘어놓은 듯이 아름답기 그지없으며, 설악산을 대표하는 3대 폭포 중의 하나로 국가문화재 명승 지정 가치가 뛰어남.

바. 지정조사 의견('12.9.12~.14)

<문화재위원* ***>

- 속초시 설악동의 노적봉 남쪽 토왕골에 위치하고 있다.
- 토왕성폭포는 화채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칠성봉을 끼고 돌아 상단 150 m, 중단 80 m, 하단 90 m로 총 길이 320 m에 이르는 3단 연폭을 이루며 폭포의 물은 토왕골을 흘러 비룡폭포와 육담폭포를 지나 흐른다. 설악산을

대표하는 3대 폭포의 하나로서 국가지정 명승으로 추천함에 의의가 없는 명소이다.

<문화재위원 ***>

- 토왕성폭포는 토왕계곡 맨위쪽의 외설악을 대표하는 폭포이며, 상단폭포의 길이 150m,
- 중단폭포 80m, 하단폭포 90m 등 총 320m의 국내최대길이의 웅장한 연폭(連瀑)으로서 하늘에서 비류해서 떨어지는 광경은 마치 선녀가 흰 비단을 바위위에 널어뜨려 놓은 것 같은 천상의 절경이라 할수 있는 것으로 명승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수 있다.
- 토왕성이란 이름은 오행설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의미는 토기(土氣)가 왕성함으로써, 석가봉, 문수봉, 보현봉, 노적봉, 취적봉, 문필봉등의 기암괴봉이 발달하여 폭포를 마치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다.
- “여지도서 양양도호부 고적조”에는 “ 토왕성은 토왕성부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성을 돌로 쌓았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옛날에 토성왕이 성을 쌓았다고 하며, 여기에 폭포가 있는데, 석벽사이로 천길이나 날아 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문헌상으로 명승적 가치가 배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토왕성폭포의 명승지정범위는 비룡폭포 상단으로 올라가다보면 멀리 토왕성폭포가 원경으로 보이는 지점에서 칠선봉아래 토왕성폭포 상단부위까지 이어지는 계곡일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화재위원 ***>

- 토왕성폭포는 3단 폭포로서 상단 약 150m, 중단 약 80m, 하단 약 90m이며 설악산을 대표하는 3대 폭포 중의 하나이다.
- 토왕성은 한자로 주로 土旺城으로 표기하는데 때로는 土王城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土旺城은 토기(土氣)가 왕성하지 않으면 기암괴봉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오행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土王城은 토성왕(土城王)이 쌓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토왕성폭포는 겨울철(2월) 빙벽타기로 유명하나 평소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육담폭포, 비룡폭포, 토왕성폭포로 이어지는 토왕골은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매우 크다.

<문화재위원 ***>

- 칠선봉으로부터 북쪽으로 발달하는 계곡의 상단에 발달하는 폭포로 비룡폭포의 동쪽에 인접하는 다른 수계에 해당한다. 흑운모화강암인 설악산화강암의 분포지에 발달하며 심한 차별침식에 따라 발달하는 높은 절벽을 배경으로 웅장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멀리서도 보아도 뚜렷한 규모의 낙차는 담홍색의 석벽과 대비되어 자연의 장엄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폭포로

국가자연유산으로 자연명승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 국가지정 명승으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 문화재 지정구역(안) 폭포의 상단을 경계로 하여 남쪽으로 약500m 이내의 폭과 연장을 지정구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전 문화재위원 ***>

- 외설악 비룡폭포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폭포로서, 화채봉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폭포임. 그 형상이 마치 선녀가 흰 비단을 바위위에 걸쳐 놓은 듯한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는 폭포로서, 매우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음.
- 상단 150m, 중단 80m, 하단 90m로서, 총 320m를 낙하하는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 토왕성폭포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폭포로 알려져 있음.
- 토왕성폭포는 그 규모와 경관을 고려할 때,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평가됨.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 1필지 / m²

명승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m ²)		소유자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토왕성폭포	강원 속초시 설악동	산41	임야	23,833,924	338,740	강원 속초 설악동 ***	대한불교 조계종 ***
합계		1필지	임야	23,833,924	338,740		

아. 허용기준(안)

- 「명승 지정 대상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등 10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허용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10-101호(2010.10.07)]

꺆뺆	뺆뺆뺆뺆 뺆뺆뺆뺆		뺆뺆
	뺆뺆뺆뺆	꺆뺆뺆뺆(3:10 뺆뺆)	
1꺆뺆	✓ 뺆뺆뺆, 뺆뺆뺆, 뺆뺆뺆, 꺆뺆뺆 뺆뺆뺆꺆 뺆 뺆뺆 뺆뺆뺆		

자. 의결사항 : 원안검토

23. 「설악산 대승폭포(雪嶽山 大乘瀑布)」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설악산 대승폭포(雪嶽山 大乘瀑布)」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설악산 대승폭포(雪嶽山 大乘瀑布)」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1.3~11.11월 2011년 지형·지질 문화재 자원조사 연구
 - 인제군 대승폭포 : 지형·지질학적·경관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음
 - '11.11~12.2월 2012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역사자원조사 학술연구
 - 설악산 자연문화유산 관련 유람기·시문·전승 구비문화이 많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
 - '12.3~12.9월 2012년 고서화·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자원 발굴조사
 - 울산바위 : 지형·지질학적·경관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음
 - 지정조사
 - '12.9.7 / 10.9 지정조사 계획보고
 - '12.9.12.~9.14. :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대승폭포, 십이선녀탕, 수렴동·구곡담 계곡, 비선대·친불동계곡(6개소)
 - '12.10.11.~10.12. : 울산바위, 공룡능선, 용아장성, 만경대(4개소)
 - 관계전문가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 '12.11.23. 지정추진계획보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설악산 대승폭포(雪嶽山 大乘瀑布)」
 -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67
 - 지정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내설악에 있으며, 한계령 아래 장수대 탐방지원센터에서 북쪽으로 1km 떨어진 계곡에 위치함.
 - 해발 740m 폭포 높이 약88m, 면적 약60㎡의 웅장한 폭포로서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한국 3대 폭포의 하나임.
 - 대승폭포가 위치한 남설악지역 대부분은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화강암류가 분포되어 특히 주변에는 인제와 원통, 양양을 잇는 단층선을 따라 발달한 폭포중의 하나로 성인별로는 단층폭포, 유형별로는 수직낙하형 폭포에 속하며, 형성된 급사면과 단애에 크고 작은 폭포가 분포하고 암석들이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수려한 경관을 나타냄.
 - 폭포 맞은편 반석 위에 '구천은하(九天銀河)'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명필 양사언(楊士彦)의 글씨라고 전해해지는 설과 현종 3년(1837) 강원감사 홍치규(洪禩圭)가 썼다는 주장도 있음.
- 문화재구역 : 1필지 / 495,930㎡
- 문화재관리단체 : 인제군

라. 문화재현황

【 입지현황 】

- 내설악에 있으며, 한계령 아래 장수대 탐방지원센터에서 북쪽 대승령 방향으로 1 km 떨어진 해발 740m 계곡에 위치하며, 주변의 옥녀탕이나 소승폭포와 더불어 설악산 장수지역의 대표적인 화강암 지형경관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임.
- 대승폭포 탐방로는 원통~양양 단층곡을 따라 흐르는 한계천과 한계령, 그리고 삼형제봉(해발 1,232m)과 주걱봉(해발 1,386m), 가리봉(해발 1,518m) 등 남설악 주봉과 이를 잇는 산능선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음.

【 지형·지질 】

- 대승폭포 일대의 지질은 백악기에 관입한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승폭포 북쪽에는 선캄브리아 시대의 편마암류와 백악기 퇴적암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승폭포 입구 장수대 부근에는 북서서-남동동 방향의 좌수향(左手向) 주향이동단층인 한계령 단층이 발달함.
- 한계령 단층과 직교하는 남북 방향의 수계는 화강암 내에 발달한 수직절리와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폭포와 깊은 협곡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승폭포 하류에는 사중폭포가 있음.

【 유래 및 전설 】

- 대승이라는 총각이 폭포가 있는 돌기둥 절벽에 동아줄을 매고 내려가서 석이를 따라갔다가 절벽위에서 “대승아 대승아 ”하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위로 올라가 보니, 어머니는 없고 동아줄에는 신작만한 지네가 매달려 동아줄을 뜯고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목숨을 건졌다는 전설에서 후세 사람들은 죽어서도 아들의 위험을 가르쳐준 대승의 어머니의 외침이 메아리 친다하여 이 폭포를 「대승폭포」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짐.

【 자연 경관 】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및 설악산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생물의 분포서식지로서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
- 설악산 내 오색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제328호 하늘다람쥐·제330호 수달이 서식
- 해발 740m 높이 약88m, 면적 약60㎡의 웅장한 폭포로서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한국 3대 폭포의 하나로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웅장한 폭포 물줄기와 넓고 길다란 수직절벽 위 소나무군락은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냄.

【 옛 문헌자료 】

-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은 설악산을 등정하는 내용의 유곡연기(遊曲淵記)에서 대승폭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켜주고 있음.

“남여에서 내려 조금 조금씩 올라가니, 폭포(대승폭)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한언덕머리에 이르러 굽어보니, 오싹하고 두근거렸다. 이에 폭포를 보니 북쪽에서 흘러내리는데 좌우의 푸른 암벽이 무려 천백길이며 폭포물은 한가운데에서 곧바로 떨어졌다. ...비가 내린뒤라 물의 기세는 더욱 힘차게 물방울을 내뿜었다. 물방울은 바람 때문에 하늘하늘 떨어져서 놀 같고 안개 같으며 실갈고 연기 같으니, 순간마다 온갖 모양으로 변했다. 아래에 있는 못에는 얼음과 눈이 아직도 엉겨 있었다. 제멋대로 오래동안 바라보다가 앉아있던 바위를 자연대(紫煙臺)라 이름짓는 바이다.”

-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설악산을 등정하는 내용의 동정기(東征記)에서 대승폭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빛내주고 있음.
“폭포(대승폭)를 정면으로 마주한 푸른 절벽이 하도 높아 몇 천자인지 알 수 없었다. 폭포가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는데, 춤추며 날아 허공에 걸려있는 모습이 마치 흐트러진 생사(生絲) 같기도 하고 흰명주를 늘어뜨린것 같

기도 하였다. 햇빛이 바로 비치자 홀연히 다채로운 무지개 빛이 되기도 하고 흑 산바람이 옆으로 불어올 적이면 마치 연기나 아지랑이처럼 자욱이 흩어져서, 언뜻 보면 그것이 물이란 사실을 모를 정도로 아름다웠다.”

- 조선말기의 여류시인 금원 김씨(錦園金氏: 1817~ 미상)는 강원도 원주사람으로 1830년 1845년 의주부윤으로 부임하는 남편 김덕회를 따라 황해도와 평안도를 유람하였으며 이후 1850년 충청도, 금강산 및 관동팔경, 황해도 및 평안도, 한양 일대를 두루 유람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호동서략기(湖東西洛記)에 기록하였는데, 여기에서 금원 김씨는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두루 유람하고도 역시 미련이 남아 인제의 설악산을 찾았다고 하면서 대승폭포는 중국의 여산(廬山)폭포보다 낫다고 하였음.
- 조선후기의 문신인 해좌 정범조(海左 丁範祖)는 1778년 양양부사로 부임하여 이듬해 3월 이곳을 유람하고 지은 한계폭(寒溪瀑)이란 시에서 이폭포가 금강산 구룡폭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마. 검토의견 (*****)

- 토왕성폭포는 화채보에서 흘러 칠성봉을 끼고 돌아 상단150m, 중단80m, 하단90m로 총 길이가 320m의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연폭(連瀑)으로 하늘에서 비류하는 광경은 천상의 절경임. 마치 선녀가 흰 비단을 바위위에 널어놓은 듯이 아름답기 그지 없으며, 설악산을 대표하는 3대 폭포 중의 하나로 국가문화재 명승 지정 가치가 뛰어나.

바. 지정조사 의견('12.9.12~.14)

<문화재위원* ***>

-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위치하는 대승폭포는 내설악의 한계령 아래 장수대에서 북쪽으로 1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 해발 740 m, 높이 약 88 m, 면적 약 60 m²의 웅장한 폭포로서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우리 나라 3대 폭포의 하나로 꼽히는 명승지다.
- 대승폭포가 위치한 남설악은 대부분 중생대 백악기의 화강암류가 분포하며 인제, 원통, 양양을 잇는 단층선을 따라 발달한 폭포들은 급경사면과 단애가 많은 곳에 생기는 수직낙하형 폭포를 이룬다.
- 폭포 맞은 편 조망점을 이루는 반석에는 조선시대 양사언 또는 홍치규의 글씨로 알려진 '구천은하'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 많은 관광객으로 인

하여 글씨가 밟혀 훼손되고 있어 시급히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국가지정 명승지로 추천하는 데 손색이 없는 절경 속의 아름다운 폭포이다.

<문화재위원 ***>

- 대승폭포는 내설악중 한계령아래 장수대에서 북쪽으로 1km 떨어진 계곡 해발 740m에 위치하며 높이88m, 소(沼)의 면적 60㎡의 웅장한 수직낙하형 폭포로서 주변 암봉들과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다 형성된 단애, 여기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수려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명승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대승이라는 총각이 폭포가 있는 돌기둥 절벽에 동아줄을 매고 내려가서 석이를 따라갔다가 절벽위에서 “대승아 대승아”하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위로 올라가 보니, 어머니는 없고 동아줄에는 신작만한 지네가 매달려 동아줄을 뜯고있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목숨을 건졌다는 전설이 있어서 명승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 폭포 맞은편 언덕반석위에는 구천은하(九天銀河)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명필 양사언(楊士彦)의 글씨라는 설과 헌종 3년(1837)강원감사 홍치규(洪耜圭)라는 설이 있으며, 그 외에도 옛부터 이곳의 관찰사나 현감으로 부임시 이곳을 찾았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다.
-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은 설악산을 등정하는 내용의 유곡연기(遊曲淵記)에서 대승폭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켜주고 있다.
- “남여에서 내려 조금 조금씩 올라가니, 폭포(대승폭)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한언덕머리에 이르러 굽어보니, 오싹하고 두근거렸다. 이에 폭포를 보니 북쪽에서 흘러내리는데 좌우의 푸른 암벽이 무려 천백길이며 폭포물은 한가운데에서 곧바로 떨어졌다. ...비가 내린뒤라 물의 기세는 더욱 힘차게 물방울을 내뿜었다. 물방울은 바람 때문에 하늘하늘 떨어져서 놀고 안개 같으며 실같고 연기 같으니, 순간마다 온갖 모양으로 변했다. 아래에 있는 못에는 얼음과 눈이 아직도 엉겨 있었다. 제멋대로 오래동안 바라보다가 앉아있던 바위를 자연대(紫煙臺)라 이름짓는 바이다.”
-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설악산을 등정하는 내용의 동정기(東征記)에서 대승폭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빛내주고 있다.
- “폭포(대승폭)를 정면으로 마주한 푸른 절벽이 하도 높아 몇천자인지 알

수 없었다. 폭포가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는데, 춤추며 날아 허공에 걸려있는 모습이 마치 흐트러진 생사(生絲) 같기도 하고 흰명주를 늘어뜨린것 같기도 하였다. 햇빛이 바로 비치자 홀연히 다채로운 무지개빛이 되기도 하고 흑 산바람이 옆으로 불어올적이면 마치 연기나 아지랑이처럼 자욱이 흩어져서 ,인뜻보면 그것이 물이란 사실을 모를 정도로 아름다웠다.”

- 조선말기의 여류시인 금원 김씨(錦園金氏: 1817~ 미상)는 강원도 원주사람으로 1830년 14세때 남자로 변장을 하고 금강산을 비롯한 관동팔경과 설악산을 단신으로 여행하였고,1845년 의주부윤으로 부임하는 남편 김덕희를 따라 황해도와 평안도를 유람하였으며 이후 1850년 충청도,금강산 및 관동팔경,황해도 및 평안도,한양일대를 두루 유람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호동서략기(湖東西洛記)로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금원김씨는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두루 유람하고도 역시 미련이 남아 인제의 설악산을 찾았다고 하면서 대승폭포는 중국의 여산(廬山)폭포보다 낫다고 하였다.
- 조선후기의 문신인 해좌 정범조(海左 丁範祖)는 1778년 양양부사로 부임하여 이듬해 3월 이곳을 유람하고 지은 한계폭(寒溪瀑)이란 시에서 이폭포가 금강산 구룡폭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화재위원 ***>

- 대승폭포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속하며 44번 국도를 따라 한계령 정상부 서쪽의 설악산 국립공원 장수대 탐방지원센터에서 대승령 방향으로 약 0.9km 지점에 위치한다. 해발 740m 지점에 위치한 대승폭포는 높이 약 88m의 웅장한 폭포로서 금강산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로 알려진 곳이다. 대승폭포는 주변의 옥녀탕이나 소승폭포와 더불어 설악산 장수지역의 대표적인 화강암 지형경관으로 관광객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 대승폭포 일대의 지질은 백악기에 관입한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승폭포 북쪽에는 선캄브리아 시대의 편마암류와 백악기 퇴적암층이 분포하고 있다. 대승폭포 입구 장수대 부근에는 북서서-남동동 방향의 좌수향(左手向) 주향이동단층인 한계령 단층이 발달한다. 대승폭포 최상단부 절리의 주향/경사는 EW/수직, N30°W/40°~50°NE, N50°W/80°SW가 우세하며 판상절리도 발달한다. 한계령 단층과 직교하는 남북 방향의 수계는 화강암 내에 발달한 수직절리와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폭포와 깊은 협곡을 형성하고 있다. 대승폭포 하류에는 사중폭포가 있다.
- 대승폭포 전방대에 오르면 한계령 단층곡을 따라 흐르는 한계천과 한계령이

한 눈에 조망된다. 삼형제봉(해발 1,232m)과 주걱봉(해발 1,386m), 가리봉(해발 1,518m) 등 내설악 주봉과 이를 잇는 산릉이 파노라마를 이루고 있으며, 크고 작은 화강암의 미풍화지형이 산재되어 있다. 암봉과 단애와 균락을 이루는 소나무는 설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다.

- 대승폭포 전망대가 있는 반석에는 ‘九天銀河’라는 글귀가 크게 새겨져 있는데, 이 글씨는 명필로 유명한 조선 선조 때의 풍수가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이 썼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종 3년(1837) 강원감사 홍치규(洪穉圭)가 썼다는 주장도 있다.
- 대승폭포에는 ‘부모를 일찍 여윈 대승(大勝)이라는 총각이 어느 날 폭포 돌기 등에 동아줄을 매고 버섯을 따고 있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절벽 위에서 다급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서 정신없이 올라가 보니 어머니는 간데없고 동아줄에는 커다란 지네가 달라붙어 동아줄을 썰고 있었다고 한다. 이 덕분에 대승은 목숨을 건졌고 죽어서도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어머니의 외침이 들리는 듯하다 해서 대승폭포라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대승폭포는 하류의 사중폭포로 연결되는 협곡과 그 주변의 암봉이나 능선을 포함하여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재위원 ***>

- 높이가 88m에 이르는 폭포로 백악기의 설악산화강암 분포지에 발달하는 폭포이다. 용아장성능이나 공룡능선, 천불동계곡과 같이 설악산에서 가장 험준하고 수려한 경관을 형성하는 것이 설악산화강암이다.
- 담홍색을 띠는 설악산화강암의 특징에 따라 담홍색의 절벽에 발달하는 폭포의 물줄기는 대조적인 자연색에 따라 특별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어 국가지정 명승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승이라는 총각의 전설이 어우러져 따뜻한 모정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경관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전 문화재위원 ***>

- 인제에서 양양으로 넘어가는 44번국도 상에 위치하고 있는 장수대에서 북쪽으로 약 1km정도 이격된 곳에 자리하고 있는 폭포임. 해발 740m 지점에 높이 약88m를 이루고 있는 폭포로서,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한국의 3대 폭포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
- 너른 직벽을 따라 수직으로 낙하하는 폭포이며, 폭포주변의 암벽과 자연식생, 폭포 상부로 연결되는 산 지형이 서로 어울려 매우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고 있음.

- 폭포 맞은편의 조망지점에는 암반 위에 ‘구천은하(九天銀河)’라고 하는 각자가 새겨져 있으며, 대승폭포는 조선시대 유람기에도 등장하는 명소로서, 문화적 의미도 깊이 깃들여 있는 경승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대승폭포는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됨.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 1필지 / 495,930㎡

명승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대승폭포	강원 인제 북면 한계리	산1-67	임야	14,537,753	495,930	대전 서구청사로 189	국유(산림청)
합계		1필지	임야	14,537,753	495,930		

아. 허용기준(안)

- 「명승 지정 대상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등 10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허용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10-101호(2010.10.07)]

광범	흙숯밧균 흙잣꿩짚		뽕균
	뚝썰뽕뽕	균썰뽕뽕(3:10 썰췌)	
1광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숯썰췌, 췌췌췌, 윗윗췌, 굵췌췌 뽕췌꺾꺾 ꚑ ꚑꚑ 췌ꚑꚑ 췌ꚑꚑ 췌ꚑꚑ		

자. 의결사항 : 원안검토

24. 「설악산 십이선녀탕(雪嶽山 十二仙女湯)」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설악산 십이선녀탕(雪嶽山 十二仙女湯)」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설악산 십이선녀탕(雪嶽山 十二仙女湯, 응봉폭포~두문폭포)」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1.3~11.11월 2011년 지형·지질 문화재 자원조사 연구
 - 인제군 대승폭포 : 지형·지질학적·경관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음
 - '11.11~12.2월 2012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역사자원조사 학술연구
 - 설악산 자연문화유산 관련 유람기·시문·전승 구비문학이 많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
 - '12.3~12.9월 2012년 고서화·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자원 발굴조사
 - 울산바위 : 지형·지질학적·경관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음
 - 지정조사
 - '12.9.7 / 10.9 지정조사 계획보고
 - '12.9.12.~9.14. :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대승폭포, 십이선녀탕, 수렴동·구곡담 계곡, 비선대·천불동계곡(6개소)
 - '12.10.11.~10.12. : 울산바위, 공룡능선, 용야장성, 만경대(4개소)
 - 관계전문가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 '12. 11.22. 지정추진계획보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설악산 십이선녀탕(雪嶽山 十二仙女湯)」
(응봉폭포 ~ 두문폭포)
 -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남교리 산12-21
 - 지정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갔다고 하여 선녀탕이라 전해지고 있으며, 예로부터 탕이 12개나 된다고 전하여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8탕이 있으며, 탕의 모양에 따라 응봉아래 응봉폭포를 지나 첫탕인 독탕, 북탕, 무지개탕, 북송아탕, 용탕이 나오는데 그 중 폭포아래 북송아 모양의 깊은 구멍이 있는 7번째 북송아탕이 백미임.
- 조선 정조 때 성해응(1760~1839)은 '동국명산기'에서 설악산의 여러 명소 중 십이선녀탕을 첫손으로 꼽음.
- 1960년 한찬석 씨가 펴낸 '설악산탐승인도지'에서는 "설악산 중에 최고 승지가 어디때뇨 누가 묻거든 십이탕의 절경을 듣기 전에는 아예 설악의 진수를 논하지 말라"고 기록.
- 폭은 그다지 넓지 않지만 크고 작은 소와 폭포들이 이어지고 잣나무와 박달나무, 소나무 등 거목들이 우거져 절경을 이룸.
- 가을에는 십이선녀탕 계곡의 최고의 경치를 느낄 수 있으며, 계곡 사이로 길게 물든 단풍과 암벽이 옥빛의 계곡수와 조화를 이루며 내설악의 장관을 연출함.
- 겨울에는 탕을 연결하는 폭포들이 흰 얼음기둥, 혹은 넓은 얼음벽으로 변해 또 하나의 겨울풍경이 아름답게 연출됨.
- 문화재구역 : 1필지 / 2,051,460㎡
- 문화재관리단체 : 인제군

라. 문화재현황

【 입지현황 】

- 내설악에 있으며 탕수동계곡이라고도 하며, 대승령(1,260m)과 안산(1,430m)에서 발원하여 약8km에 걸쳐 폭포와 탕이 연속으로 있으며, 인제 남교리에서 북천개울을 건너 안산을 보고 40분쯤 들어가면, 탕소동골을 오르면서 처음 승소(僧沼)를 만나게 되고, 칠음대(七音臺), 구선대(九仙臺), 응봉(1,221m)아래 응봉폭포를 지나 독탕, 북탕, 무지개탕, 북송아탕, 용탕 등이 나오며, 위로 가면 두문폭포 등이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아냄.

【 지형·지질 】

- 선캄브리아기 편마암류와 이를 관입한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류, 그리고 상류에는 이들과 부정합을 이루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류와 다시 이들 모두를 관입한 백악기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함.

- 십이선녀탕 계곡에는 폭포, 폭호, 돌개구멍, 담소, 암석하상, 자갈하상, 등이 이어져 있고, 돌개구멍은 해발 690m와 해발800m 사이의 설악산 화강암에 2개의 폭포(용탕폭포, 용탕폭포)와 함께 밀집되어 발달함.
- 용탕폭포 상류 해발 930m에는 편마암과 화강암류 경계부에 두문폭포가 발달하며, 그 아래에는 큰 폭호가 있음.
- 응봉폭포 부근은 쥐라기 화강암을 관입한 중성 암맥을 따라 차별침식에 의하여 계곡이 발달함.

【 유래 및 전설 】

- 십이선녀탕에서 밤이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갔다는 십이선녀탕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

【 자연 경관 】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및 설악산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생물의 분포서식지로서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제328호 하늘다람쥐·제330호 수달이 서식
- 폭은 그다지 넓지 않지만 크고 작은 소와 폭포들이 이어지고 잣나무와 박달나무, 소나무 등 거목들이 우거져 절경을 이룸.
- 설악산의 대표적인 금강송림과 참나무림, 서어나무림 등 침엽수와 활엽수의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가을철 단풍은 더욱 그윽하고 경치가 뛰어나.

【 옛 문헌자료 】

- 조선 정조때 성해옹(1760-1839)의 《동국명산기》에서도 “설악산의 여럿 명소중 십이선녀탕을 첫손으로 꼽았다”고 하며, 1960년 한찬석씨가 펴낸 《설악산탐승인도지》에서는 “설악산의 최고 명승지로서 십이선녀탕의 절경을 듣기전에는 설악의 진수를 논하지 말라”고 기록함.

마. 검토의견 (***)**

- 정조 때 성해옹(1760~1839)은 ‘동국명산기’에서 설악산의 여러 명소 중 십이선녀탕을 첫손으로 꼽을 정도로 옛 문헌자료에도 명승적 가치가 뛰어나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갔다고 하여 ‘선녀탕’이라 전해지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 문학자료 등이 풍부하여 명승적 가치가 높음.
- 칠음대(七音臺), 구선대(九仙臺), 응봉(1,221m)아래 응봉폭포를 지나 독탕, 북탕, 무지개탕, 복숭아탕, 용탕 등이 나오며, 위로 가면 두문폭포 등이 있어 수려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어 명승적 가치가 뛰어나.

바. 지정조사 의견('12.9.12~.14)

<문화재위원장 *>**

-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위치하는 십이선녀탕은 내설악의 대승령과 안산에서 발원하여 약 8 km에 걸쳐 폭포와 탕이 연속되고 있다.
-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간다는 설화로 인하여 12개의 소가 있는 십이선녀탕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8개의 탕이 있으며 그중 위로부터 7번째인 복숭아탕이 그 중 백미다.
- 십이선녀탕은 폭이 넓지 않지만 크고 작은 소와 폭포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변의 수림이 우거져 계곡의 경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국가지정 명승지로 추천함에 손색이 없는 명소이다.

<문화재위원 *>**

- 십이선녀탕계곡은 대승령(1,260m)과 안산(1,430m)에서 발원하여 약 8km에 걸쳐 폭포와 탕이 연속으로 이어져 있고, 구슬같은 푸른물이 변화와 기교를 부리면서 암반위를 흐르며 수은작용(水銀作用)에 의해 폭포 밑에서 소용돌이치는 두문폭포, 용탕폭포, 응봉폭포등이 있어 명승적 가치가 빼어나다 할 수 있다.
- 인제읍 남교리에서 북천개울을 건너 안산을 보고 40분쯤 들어가면, 탕수동골을 올라가면서 처음에 보는 승소(僧沼)를 만나게 되고, 칠음대(七音臺),구선대(九仙臺)를 지나게 된다. 또한 응봉(1,221m)아래 응봉폭포를 지나 독탕, 북탕, 무지개탕, 복숭아탕 등이 나오며, 위로가면 두문폭포, 그리고 그 위로 2개의폭포가 더 있고 거기에 따른 원형모양의 탕들이 여기저기 이어져 있어 이곳에서 밤이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갔다는 십이선녀탕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조선정조때 성해옹(1760-1839)의 “동국명산기”에서도 설악산의 여럿명소중 십이선녀탕을 첫손으로 꼽았다고 하며, 1960년 한찬석씨가 펴낸 ”설악산탐승인도지“에서는 ”설악산의 최고승지로서 십이선녀탕의 절경을 듣기전에는 설악의 진수를 논하지말라“고 기록할 정도로 십이선녀탕을 최고로 인정했다.
- 따라서 폭은 그다지 넓지않지만 크고작은 소와 폭포들이 이어지고 잣나무와 박달나무,소나무, 단풍나무등 거목들이 우거져 철마다 절경을 이룸으로써 십이선녀탕은 설악산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명승중 하나라고 할수 있다.
- 명승의 지정범위는 응봉폭포에서부터 두문폭포위 2개의 폭포까지의 계곡과 좌우의 능선아래까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화재위원 ***>

- 십이선녀탕 계곡은 인제군 북면 남교리에 속하며 길이는 남교리 입구에서 남쪽으로 약 8km에 이른다. 이 일대의 지질은 선캄브리아 시대의 편마암류와 이를 관입한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류, 그리고 상류에는 이들과 부정합을 이루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류와 다시 이들 모두를 관입한 백악기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한다.
- 십이선녀탕 계곡에는 폭포(응봉폭포, 용탕폭포, 용탕폭포, 두문폭포 등), 폭호, 돌개구멍, 담소, 암석하상, 자갈하상 등이 이어져 있고, 맑은 계류와 울창한 수목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 십이선녀탕의 탕(湯)은 목욕할 수 있는 원통형의 욕조와 같이 생긴 커다란 돌개구멍을 말하는데 이러한 탕이 12개가 있어 12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했다고 해서 12선녀탕이라 부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8개의 돌개구멍이나 돌개구멍성 폭호와 4개의 폭포를 합하여 12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돌개구멍은 해발 690m와 해발 800m 사이의 설악산 화강암에 2개의 폭포(용탕폭포와 용탕폭포)와 함께 밀집되어 발달한다.
- 가장 유명한 용탕폭포 중간에는 용탕(龍湯)이라고 부르는 돌개구멍이 있는데, 이는 용탕 뒤쪽의 암벽에 있는 큰바위굴(龍穴)에서 용이 나왔다 하여, 가뭄이 계속되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탕은 몇 개의 돌개구멍이 합쳐져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마치 복숭아 같이 생겨 복숭아탕이라고도 부른다. 용탕폭포 상류 해발 930m에는 편마암과 화강암류 경계부에 두문폭포가 발달하며 그 아래에는 12x7m의 폭호가 있다. 한편 응봉폭포 부근에는 쥐라기 화강암을 관입한 중생 암맥을 따라 차별침식에 의하여 계곡이 발달한다.
- 십이선녀탕 계곡은 설악산의 여러 계곡들 중에서도 빼어난 절경을 이루고 있는 계곡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명승으로서의 지정가치가 매우 크다.

<문화재위원 ***>

- 계곡을 구성하는 암석이 다양하여 계곡을 따라 곳곳에서 다양한 경관을 보여준다. 가리봉화강암과 편마암, 대승령층 통과 염기성 암맥과 설악산화강암의 암맥이 발달한다. 편마암으로 이루어지는 계곡에서는 심한 굴곡을 보이는 대상구조가 하상에 드러나 아름다운 문양을 발달시키고, 또는 짙은 회색을 띠는 염기성 암맥을 따라 발달된 하천은 주변 암석의 밝은색과 대조되어 마치 흑룡이 굽틀거리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경관을 보여주기도 한다. 국가지정 명승자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경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 국가지정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지정구역 안은 하천을 중심으로 하여 계곡의 입구로부터 약 500m 지점으로부터 선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 문화재위원 ***>

-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서 북쪽 미시령방향으로 갈라져 올라가는 46번국도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내설악 계곡임. 대승령(1,260m)과 안산(1,430m)에서 발원한 맑은 물이 약 8km를 흐르며 형성한 절경의 계곡으로, 폭포와 담(탕)이 연속되는 연계경관을 이루고 있음.
- 계곡은 꺾이고 돌아 떨어지면서 독탕, 북탕, 무지개탕, 복숭아탕, 용탕 등 수많은 담을 형성하고, 담과 담을 연결하는 물길은 바위를 깎아 계곡의 경관을 한층 더 아름답게 하고 있음.
- 조선 후기 성해응(1760~1839)의 ‘동국명산기’에 설악산 최고의 명소로 실려 있는 곳으로서, 십이선녀탕은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판단됨.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 1필지 / 2,051,460㎡

명승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십이선녀탕	강원 인제 북면 용대리	산12-21	일야	65,964,656	2,051,460	대전 서구청사로 189	국유(산림청)
합계		1필지	일야	65,964,656	2,051,460		

아. 허용기준(안)

- 「명승 지정 대상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등 10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허용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10-101호(2010.10.07)]

꺾뺨	꺾뺨꺾꺾 꺾뺨꺾꺾		꺾꺾
	꺾뺨꺾꺾	꺾뺨꺾꺾(3:10 꺾뺨)	
1꺾꺾	✓ 꺾뺨꺾꺾, 꺾뺨꺾꺾, 꺾뺨꺾꺾, 꺾뺨꺾꺾, 꺾뺨꺾꺾, 꺾뺨꺾꺾, 꺾뺨꺾꺾, 꺾뺨꺾꺾, 꺾뺨꺾꺾, 꺾뺨꺾꺾		

자. 의결사항 : 원안검토

25.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雪嶽山 水簾洞·九曲潭 一圓)」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雪嶽山 水簾洞·九曲潭 一圓)」의 국가 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雪嶽山 水簾洞·九曲潭 一圓)」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1.3~11.11월 2011년 지형·지질 문화재 자원조사 연구
 - 인제군 대승폭포 : 지형·지질학적·경관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음
 - '11.11~12.2월 2012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역사자원조사 학술연구
 - 설악산 자연문화유산 관련 유람기·시문·전승 구비문화이 많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
 - '12.3~12.9월 2012년 고서화·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자원 발굴조사
 - 울산바위 : 지형·지질학적·경관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음
 - 지정조사
 - '12.9.7 / 10.9 지정조사 계획보고
 - '12.9.12.~9.14. :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대승폭포, 십이선녀탕, 수렴동·구곡담 계곡, 비선대·천불동계곡(6개소)
 - '12.10.11.~10.12. : 울산바위, 공룡능선, 용아장성, 만경대(4개소)
 - 관계전문가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 '12.11.22. 지정추진계획보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설악산 수렴동·구곡담 계곡 일원(雪嶽山 水簾洞·九曲潭 一圓)」 (만수폭포~쌍룡폭포)
 -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 지정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영시동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폭포가 있는데 그 모양이 발(簾)을 쳐 놓은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명칭은 금강산의 수렴동계곡에서 따옴.
- 수렴동계곡은 원래 구곡담계곡과 백운동계곡을 포함하여 귀때기봉까지였으며, 수렴폭포가 백운동 초입에 있음.
- 수렴동계곡은 내설악의 대표적 계곡으로서 특히 가을 단풍길로 유명함. 전체적으로 아주 완만하고 유순한 계곡이며, 길이 포장된 백담계곡에 비해 자연스러운 맛이 있으며 경치도 더 빼어나. 현란한 아름다움보다는 그윽한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곳임.
- 특히 가을단풍과 어우러지는 계곡의 절경은 이 길을 설악산의 대표적인 단풍길로 만들어 주며, 셀 수 없을 만큼의 소(沼)와 담(潭)이 연속적으로 늘어져있는 절경을 갖추고 있음.

○ 문화재구역 : 1필지 / 1,394,770㎡

○ 문화재관리단체 : 인제군

라. 문화재현황

【 입지현황 】

- 백담계곡에서 수렴동계곡을 지나 구곡담계곡에 이르는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에 속한 지역으로 수렴동계곡을 따라 오르는 길에 백담사와 영시암이 있으며, 영시암 위 능선부에서 오세암으로 가는 길과 봉정암으로 가는 길로 갈라지며, 봉정암으로 가는 구곡담계곡을 따라가다보면 만수폭포, 관음폭포, 용손폭포, 쌍용폭포 등을 볼 수 있음.

【 지형·지질 】

-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가리봉 화강암과 선캄브리아기 편마암류 및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류 지대를 지나는 영실천의 하식작용으로 형성된 기다란 계곡으로 암석하상, 자갈하상, 담소, 소규모 폭포 등이 발달하여 수려한 경관을 이룸.

【 유래 및 전설 】

- 영시동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폭포가 있는데 그 모양이 발(簾)을 쳐 놓은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명칭은 금강산의 수렴동계곡에서 따옴.
- 수렴동계곡이라 불리는 곳의 원래 위치는 수렴동대피소에서부터 귀때기봉까지였으며, 지금의 구곡담계곡 일부와 백운동계곡을 포함한 지역임. 수렴폭포가 백운동계곡 초입에 있어서 그 일대를 예전에는 수렴동계곡이라고 불렀다함.

- 영시동(永矢洞) : 백담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6.25때 없어졌으며, 조선시대 인조26년(1648)에 삼연 김창흡이 이 곳에 영시암을 짓고 살았는데 6년 되는 해에 찬모가 호랑이에게 물려가 호식동(虎食洞)이라고도 함.

【 자연 경관 】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및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
- 백담계곡에서 구곡담계곡 지역에는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제328호 하늘다람쥐·제330호 수달이 서식.
- 백담사에서 구곡담에 이르는 숲길가로 영시암과 폭포(쌍룡폭포, 관음폭포, 용담폭포 등)와 폭호, 암봉 등의 수려한 경관을 보여줌.
- 설악산의 대표적인 금강송림과 참나무림, 서어나무림 등 침엽수와 활엽수의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가을철 단풍은 더욱 그윽하고 경치가 뛰어나.

【 옛 문헌자료 】

- 수렴동에 관한 옛 문헌 기록으로 김창흡(金昌翕 : 1653~1722)이 설악산탐방 소회를 적은 동유소기(東遊小記)에서 “..... 일찍이 나는 천하의 기이한 경관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오직 황산을 그린 그림이 이것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동쪽으로 큰 바다에 접해있어 일출을 볼 수 있으며, 아래에는 만길되는 수렴동과 폭포가 있으니 빼어난 경관을 다 갖추고 있는 점에서 황산은 여기에 까마득히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함.
- 홍태유(洪泰猷 : 1672-1715)는 유설악기(遊雪嶽記)에서 “인제의 승경은 곡백담과 심원사와 삼연정과 12폭의 폭포와 봉정암과 폐문암인데 모두 내가 이 자세히 본 것 들이다. 만약 높은 봉우리와 천석의 기이함을 논하자면 수렴동의 12폭이 최고이다. 나는 명산을 많이 보았는데 오직 금강산이 설악과 더불어 서로 백중이다. 다른 산들은 설악과 더불어 맞설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피력함으로서 수렴동의 계곡과 폭포들을 극찬함.
- 이복원(李福源 : 1719-1792)은 설악왕환일기(雪岳往還日記)에서 “12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니, 폭포수는 메달리지도 높지도 않으면서 어지러이 휘몰아쳐 소용돌이치며 흐르는데, 그 모양이 각각 따로 따로 었다. 봉우리 암벽은 수렴동과 같아 한걸음 내딛을수록 환상적인 모습이 갈수록 더욱 기이하였다. 현지의 부르짖는 소리가 귀 뒤로 끊이지 않았고, 통인과 흡창들 또한 박수치며 혀를 내두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여 수렴동의 폭포와 암벽의 뛰어난 경관을 극찬함.

마. 검토의견 (***)**

- 수렴동에 관한 옛 문헌 기록으로 김창흡(金昌翕 : 1653~1722), 홍태유(洪泰猷 : 1672-1715) 등이 있으며, 수렴동 계곡과 폭포를 중국의 황산보다 경치가 아름답다고 표현하여 명승적 가치를 높임.

- 백담사에서 구곡담에 이르는 숲길가로 영시암과 폭포(쌍룡폭포, 관음폭포, 용담폭포 등)와 폭호, 암봉 등의 수려한 경관을 보여주며, 가을단풍과 어우러지는 계곡의 절경은 이 길을 설악산의 대표적인 단풍길로 만들어주고 있어 명승적 가치가 뛰어나.

바. 지정조사 의견('12.9.12~.14)

<문화재위원* *>**

-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위치하는 수렴동계곡은 백담계곡 상류의 백담산장 위쪽으로부터 구곡담계곡과 가야동계곡이 갈라지는 약 6 km 구간이다.
- 내설악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계곡으로서 특히 가을 단풍과 어우러지는 계곡의 완만한 자연스러움과 경치는 내설악을 대표하는 명소로 평가되며 많은 소와 담이 연속되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국가지정 명승으로 추천함에 의의가 없는 빼어난 곳이다.

<문화재위원 *>**

- 수렴동계곡은 인제읍 백담리 동쪽에 있는 마을 영시동(永矢洞)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폭포가 있는데 그 모양이 발(簾)을 쳐놓은 것 같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지형지세는 물론 곳곳에 폭포들과 소(沼)와 담(潭)이 있고 봄여름에는 꽃들과 신록이,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 명승적 가치가 뛰어나다.
- 전체적으로 아주 완만하고 유순한 계곡이고 길이 포장된 백담계곡에 비해 자연스러운 맛이 있으며 경치의 그윽한 운치를 느낄수 있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 수렴동계곡이라 불리는 곳의 원래위치는 수렴동대피소에서부터 귀매기봉까지였으며, 지금의 구곡담계곡일부와 백운동계곡을 포함한 지역이다. 수렴폭포가 백운동계곡 초입에 있어서 그 일대를 예전에는 수렴동계곡이라 불렀다 .
- 따라서 명승의 지정범위는 백담계곡 상류인 백담산장 위쪽에서부터 수렴동대피소, 그리고 구담계곡의 만수폭포, 용손폭포, 관음폭포, 쌍용폭포까지를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수렴동계곡에 관한 기록으로는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이 설악산탐방 소회를 적은 동유소기(東遊小記)가 있다. 여기에서 그는 오세암에서 마등령연결코스의 보문암에서 보는 동해바다와 수렴동계곡을 노래했다. “만개의 칼끝과 모아놓은 창가지 천개가 우뚝하게 위로 뻗어 힘차게 나는 듯하다. 얼핏보면 놀아서 허둥거리게 되지만 끝내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니, 곧 ”아침에 본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정취를 갖게된다. 일찍이 나는 천하의 기이한 경관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오직 황산을 그린 그림이 이것과 비

숫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동쪽으로 큰 바다에 접해있어 일출을 볼수 있으며, 아래에는 만길되는 수렴동과 폭포가 있으니 빼어난 경관을 다 갖추고 있는점에서 황산은 여기에 까마득히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 또한 홍태유(洪泰猷: 1672-1715)는 유설악기(遊雪岳記)에서 “인제의 승경은 곡백담과 심원사와 삼연정사와 12폭의 폭포와 봉정암과 폐문암인데 모두 내가 이미 자세히 본것들이다. 만약 높은 봉우리와 천석의 기이함을 논하자면 수렴동의 12폭포가 최고이다.

“나는 명산을 많이 보았는데. 오직 금강산이 설악과 더불어 서로 백중(伯仲)이다. 다른 산들은 설악과 더불어 맞설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피력하였다. 그리고 “수렴동의 12폭은 모두 위쪽 폭포수와 아래쪽 못물이 제멋대로 세차게 흘러내려 형세가 격하여 소리가 씩씩했다. 제4폭이상은 폭포 3개가 이어져서 흘러내리는 물이 마치 흰배와 같았다. 가운데 좁은 곳은 흙통이 되어서 물이 못으로 떨어졌다. 못물은 빗줄이 정히 까매서 깊이 헤아릴수 없었다. 제1폭은 좌우 두줄기로 흐르는데 오른쪽 물줄기는 길이가 몇 백 척이고 왼쪽 물줄기는 길이가 오른쪽 물줄기보다 3분의 1정도가 짧다. 사이는 또한 수십보가 되지 않으나 쌍무지개가 서로 마주하여 빛나는 햇별에 밝게 아롱졌다“라고 수렴동의 계곡과 폭포들을 극찬함으로 써 이곳의 명승적 가치를 드높였다고 할 수 있다.

- 이복원(李福源:1719-1792)은 설악왕환일기(雪岳往還日記)에서 수렴동계곡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수렴동에 이르자 사방에서 절벽이 하늘로 뻗는데, 물바닥에서부터 산정상까지가 마치 한 개의 큰 돌로 깎아 만든 듯하였다. 허리위로는 절대 바늘로 꿰뚫 틈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무가 우거진 숲은 모두 허리아래에 있는데, 듬성듬성하여 그리 무성하게 뒤덮힐 정도는 아니었다. 빙둘러 늘어선것은 병풍같고 뾰족한 것은 칼날 같았다. 고고하고 웅장하며 기궤하고 교묘한 것이 모양은 한결같지 않았다.”

“12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니, 폭포수는 매달리지도 눕지도 않으면서 어지러이 휘몰아쳐 소용돌이치며 흐르는데, 그 모양이 각각 따로 따로였다. 봉우리 암벽은 수렴동과 같아 한결음 내딛을수록 환상적인 모습이 갈수록 더욱 기이하였다. 현지의 부르짖는 소리가 귀뒤로 끊이지 않았고, 통인과 흙창들 또한 박수치며 허를 내두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쌍폭은 바로 12폭포가 끝나는 곳으로서 암벽의 위세가 가장 현격하게 뛰어났으나, 오랫동안 가물어 물이 적어서 뿔어대며 뒤흔드는 기세는 없었어도 역시 절로 간드러진 모습이 모든사람이 좋아할 만하였다.”

- 이외에 시조시인이자 학자인 노산 이은상(盧山 李殷相:1903-1982)이 1933년 가을에 설악산여행을 마치고 쓴 “설악해강“이라는 기행문에 인자요산(仁者樂山)이란 말이 있듯이 설악산 수렴동계곡 일대의 수려한 경관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내용이 있다.

<문화재위원 ***>

- 백담 계곡에서 수렴동 계곡에 이르는 지역은 인제군 북면에 속한다.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가리봉 화강암과 선캄브리아 시대의 편마암류 및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류 지대를 지나는 영실천의 하식작용으로 형성된 기다란 계곡으로 도처에 암석하상, 자갈하상, 담소, 소규모 폭포 등이 발달하여 수려한 경관을 이룬다. 백담 계곡은 수렴동 계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깊은 계곡을 이룬다. 계곡의 암석하상을 이루는 노두에서는 관입구조, 단층구조, 퇴적구조 등의 다양한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 백악기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과 같이 뾰족한 암봉, 암석능선, 토르, 협곡, 기암괴석 등이 발달한 험준한 지형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수려한 계곡과 풍부한 수량, 우거진 삼림, 역사성이 있는 백담사와 영시암, 숲 속을 지나는 탐방로, 백담탐방 안내소, 수렴동 대피소 등이 있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명승지정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나 수렴동 대피소에서 봉정암에 이르는 구곡담 계곡과 그 주변의 능선은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다.
- 따라서 용아장성의 남서쪽에서 용아장성과 나란하게 발달하는 구곡담 계곡에는 폭포(쌍룡폭포, 관음폭포, 용담폭포 등), 폭호, 암봉 등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백담 계곡과 수렴동 계곡 및 구곡담 계곡을 포함하여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재위원 ***>

- 백담사로부터 남쪽으로 발달하는 계곡으로 비교적 폭이 넓은 계곡이다. 주변의 수림들과 수림사이로 보이는 하천 경관이 아름답다. 계곡을 구성하는 암석들도 다양하여 비교적 밝은 색을 띠는 각성석화강암 분포지에서는 계곡임에도 넓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암반과 소가 만들어져 아기자기한 전형적인 설악산의 계곡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우수한 경관성을 보여준다. 다만 경관적인 면에서는 계곡의 하류부인 백담계곡의 유백색 암반들과 여러 곳에 발달하는 소들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정구역 안은 백담사로부터 약 500m 남쪽 계곡부부터 수렴동대피소까지 동, 서 산릉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설정함이 좋을 것으로 본다.

○ 문화재가치

〈비선대〉

- 외설악 지구의 천불동계곡 들머리에 있는 커다란 암반(巖盤)으로서 와선대(臥仙臺) 위쪽으로 약 300m 거리에 있음.
- 명칭은 와선대에서 노닐던 마고선(麻姑仙)이라는 신선이 이곳에 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붙여짐.
- 천불동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가 이리저리 휘어지며 작은 폭포를 이루는 등 금강산의 만폭동(萬瀑洞)에 못지않은 경관을 빚어 설악산의 대표적 명승지로 꼽힘.
-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감상했다고 하며, 암반에 많은 글자가 새겨져있는데 특히 「비선대(飛仙臺)」라고 쓴 글자가 대표적이며, 『양양읍지』에 윤순(尹淳)이 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 비선대 뒤 미륵봉(彌勒峰) 중턱에 뚫려있는 길이 18m의 자연 석굴을 금강굴이라 하며, 일찍이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수도했다고 전해음.

〈천불동계곡〉

- 설악골계곡이라고도 하며, 설악산에 있는 대표적 계곡의 하나임.
-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靑峰)으로 오르는 7km 코스의 중간 계곡으로 설악의 산악미를 한곳에 집약하듯, 와선대(臥仙臺)를 비롯하여 비선대 ·문주담(文珠潭) ·이호담(二湖潭) ·귀면암(鬼面岩) ·오련폭포(五連瀑布) ·양폭(陽瀑) ·천당폭포(天堂瀑布) 등 우수한 경관들이 계곡을 따라 이어짐으로써 명승적 가치가 뛰어난 계곡임.
- 천불동이라는 호칭은 천불폭포에서 딴 것이며, 계곡 일대에 펼쳐지는 천봉만암(千峰萬岩)과 청수옥담(淸水玉潭)의 세계가 마치 ‘천불’의 기관(奇觀)을 구현한 것 같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바위와 암봉으로 이루어진 골짜기는 범상치 않고 빼어난 천하의 절경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산악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음.
- 문주담(文珠潭)은 귀면암 위쪽에 항상 맑은 물이 고여 있는데 조선 세조 당시 문주보살이 이곳에서 목욕을 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임.
- ‘오련폭포’는 천불동 계곡 상부에 자리잡고 있는 폭포로서 협곡 사이에 5개로 연이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양폭’과 ‘음폭’은 오련폭포를 지나 계곡이 좌우로 분류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폭포로서 우측에서 흐르는 폭포를 양폭이라 하고 좌측에서 흐르는 폭포를 음폭이라고 불러 양음이 합쳐져서 천불동계곡을 이룸.
- 이 양폭상단에서 200m를 거슬러 올라가면 천불동 계곡의 상류 마지막 아름다운 폭포인 ‘천당폭포’에 이르게 되는데, 모든 속세에서 고난을 겪고 살아오다가 이곳에 오르면 마치 천당에 이른 통쾌감을 느끼게 된다 하여 이름이 붙여짐.

- 지리산 칠선계곡과 한라산 탐라계곡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계곡중 하나임.
- 무수히 많은 바위와 암봉(巖峰)으로 이루어진 골짜기는 범상치 않고 빼어나 천하의 절경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산악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골골이 폭포와 담소가 연이어 절승을 이루고 있어 계곡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음.

- 문화재구역 : 1필지 / 1,495,360㎡
- 문화재관리단체 : 속초시

라. 문화재현황

【 입지현황 】

- 내설악에 있으며 탕수동계곡이라고도 하며, 대승령(1,260m)과 안산(1,430m)에서 발원하여 약8km에 걸쳐 폭포와 탕이 연속으로 있으며, 인제 남교리에서 북천개울을 건너 안산을 보고 40분쯤 들어가면, 탕수동골을 오르면서 처음 승소(僧沼)를 만나게 되고, 칠음대(七音臺), 구선대(九仙臺), 응봉(1,221m)아래 응봉폭포를 지나 독탕, 북탕, 무지개탕, 복숭아탕, 용탕 등이 나오며, 위로 가면 두문폭포 등이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아냄.

【 지형·지질 】

- 선캄브리아기 편마암류와 이를 관입한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류, 그리고 상류에는 이들과 부정합을 이루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류와 다시 이들 모두를 관입한 백악기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함.
- 지각의 용기작용, 풍화작용, 동해로 흘러드는 쌍천의 침식작용으로 매우 수려한 경관을 이룸.
- 와선대는 하천의 마식작용으로 널따란 반석이 발달한 곳임.
- 비선대는 암석하상과 2단폭포, 폭호와 돌개구멍에의하여 형성된 소로 구성되며, 수직절벽과 암봉이 발달하여 절경을 이룸.
- 비선대에서 마등령으로 가는 길목에서 비선대 앞 장군봉(미륵봉) 아래와 단애 중간에 있는 금강굴은 절리를 따라 발달한 풍화작용을 받아 형성됨.
- 천불동계곡은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靑峰)으로 오르는 7km 코스의 중간 계곡으로 설악의 산악미를 한곳에 집약하듯, 와선대(臥仙臺)를 비롯하여 비선대 ·문주담(文珠潭) ·이호담(二湖潭) ·귀면암(鬼面岩) ·오련폭포(五連瀑布) ·양폭(陽瀑) ·천당폭포(天堂瀑布) 등 우수한 경관들이 계곡을 따라 이어짐.

【 유래 및 전설 】

- 비선대 명칭은 와선대(臥仙臺) : 옛날 마고선이라는 선인이 다른 선인들과 더불어 거문고를 타면서 아름다운 산수의 경치를 누워서 감상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에서 노닐던 마고선(麻姑仙)이라는 신선이 이곳에 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붙여짐.

- 천불동이라는 호칭은 천불폭포에서 딴 것이며, 계곡 일대에 펼쳐지는 천봉만암(千峰萬岩)과 청수옥담(淸水玉潭)의 세계가 마치 '천불'의 기관(奇觀)을 구현한 것 같다고 일컬어지고 있음.

【 자연 경관 】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및 설악산 국립공원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생물의 분포서식지로서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
- 외설악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제328호 하늘다람쥐·제330호 수달이 서식
- 비선대는 풍치가 너무도 우아하여 와선대로부터 석계반석을 따라 올라가면 크고 작은 폭포가 잘 조화되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자아내는 설악산의 대표적 명승지임.
- 천불동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가 주변 암봉들아래 이리저리 휘어지며 작은 폭포를 이루는 모습은 금강산의 만폭동에 못지않은 경관을 빚어냄.

【 옛 문헌자료 】

- 김창흡(金昌翕), 「설악일기(雪岳日記)」에서 비선대와 천불동계곡을 다음과 같이 묘사함. “화산에 창룡암이 있는데 험난함은 비길 바가 없다고 하는 말을 예전에 들었는데 이 곳과 비교하면 어떨지 알지 못하겠다. 어렵게 십리쯤을 가 식당암에 이르렀다. 암석이 평평하고 반들반들하여 앉을 만하였다. 좌우로 뻣뻣하고 빼어난 봉우리와 절벽이 매우 많았다. 그 중에 금강굴이 최고로 기이하였는데 곁에 매우 아름다운 붉은 절벽이 있어 우러러 보고 굽어보며 깊은 숨을 몰아쉬니 정신과 마음속이 시원해졌다.”라고 하여 비선대 주변의 경관을 극찬하였으며, 김몽화(金夢華), 「유설악록(遊雪嶽錄)」에도 설악산 유람중 비선대와 천불동계곡에 대한 유람글이 있음.

마. 검토의견 (***)**

- 비선대는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감상하며, 비선대의 경치를 노래하였으며, 비선대의 풍치가 너무도 우아하여 와선대로부터 석계반석을 따라 올라가면 크고 작은 폭포가 잘 조화되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자아내는 설악산의 대표적 명승지임.
- 천불동계곡은 지각의 용기작용, 풍화작용, 동해로 흘러드는 쌍천의 침식작용으로 매우 수려한 경관을 나타내며, 문주담(文珠潭)·이호담(二湖潭)·귀면암(鬼面岩)·오련폭포(五連瀑布)·양폭(陽瀑)·천당폭포(天堂瀑布) 등이 어우러진 모습은 금강산의 만폭동에 못지않은 경관을 빚어내며, 우수한 경관들이 계곡을 따라 이어져 명승적 가치가 뛰어난 계곡임.

바. 지정조사 의견('12.9.12~.14)

<문화재위원* *>**

- 속초시 설악동에 위치하는 비선대는 외설악 지구 천불동 계 들머리에 있는 커다란 암반으로서 와선대 위쪽으로 약 300 m 거리에 있다.
- 비선대는 와선대에서 노닐던 마고선이라는 신선이 이곳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에 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천불동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가 휘어지고 구비치며 작은 폭포를 이루는 등, 금강산의 만폭동에 못지 않는 경관을 이루고 있어 설악산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리는 명소의 하나이다.
- 비선대 위쪽 미륵봉 중턱에 뿔려 있는 길이 18 m의 자연석굴은 금강굴이라고 하며 일찍이 원효대사가 수도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국가지정 명승으로 추천함에 의의가 없는 명소이다.
- 속초시 설악동에 위치하는 천불동계곡은 설악골계곡이라고도 불리며 설악산을 대표하는 계곡의 하나이다.
- 천불동계곡은 비선대에서 대청봉으로 오르는 7 km 길의 중간에 위치하는 계곡으로서 설악산의 산악미를 한 곳에 집약하듯 한 절경을 이루고, 와선대를 비롯한 비선대, 문주암, 이호담, 귀면암, 오련폭포, 양폭, 천당폭포 등 우수한 경관들이 이 계곡을 따라 이어지고 있다. 천불동계곡은 지리산의 칠선계곡, 한라산의 탐라계곡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계곡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함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문화재위원 *>**

- 설악산 비선대는 외설악지구의 천불동계곡 들머리에 있는 커다란 암반으로 와선대 위쪽으로 약 300m거리에 있으며, 비선대뒤 미륵봉 중턱의 금강굴로 이어지는 암봉들과 천불동 안쪽에 펼쳐지는 경관이 비경을 연출함으로써, 명승적 가치가 충분하다 할 수 있다.
- 천불동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가 주변 암봉들아래 이리저리 휘어지며 작은 폭포를 이루는 모습은 금강산의 만폭동에 못지않은 경관을 빚어낸다.
- 비선대는 풍치가 너무도 우아하여 와선대로부터 석계반석을 따라 올라가면 크고 작은 폭포가 잘 조화되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자아내는 설악산의 대표적 명승지이다.
-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감상했고, 암반에 많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비선대(飛仙臺)라고 하는 글씨는 양양읍지에 윤순(尹淳)이 쓴 것으로 기록되어있으며, 명칭은 와선대에서 노닐던 마고선(麻姑仙)이라는 신선이 이곳에 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붙여졌다고 전해져 온다.

- 천불동계곡은 비선대에서 대청봉으로 오르는 7km코스의 중간계곡으로 설악의 산악미를 한곳에 집약한 듯, 와선대, 비선대, 문주담, 귀면암, 오련폭포, 양폭, 천당폭포 등 우수한 경관들이 이어짐으로써 명승적 가치가 뛰어난 계곡이라 할 수 있다.
- 귀면암은 천불동계곡 일대에 천태만상으로 늘어선 1,000여개의 뾰족봉들과 함께 마치 조각가의 작품처럼 제각기 예술미를 지니고 있다.
- 제멋대로 생긴 수많은 괴석 첩봉(怪石疊峰)은 어떻게 보면 사자같고, 멧호비슷한가 하면 늙은 스님이 엮불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주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경관을 이룬다.
- 문주담(文珠潭)은 귀면암 위쪽에 향시 맑은 물이 고여있는데 조선세조대 왕당시 문주보살이 이곳에서 목욕을 한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오련폭포는 천불동 계곡 상부에 자리잡고 있는 폭포로서 협곡사이에 5개로 연이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양폭과 음폭은 오련폭포를 지나 계곡이 좌우로 분류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폭포로서 우측에서 흐르는 폭포를 양폭이라 하고 좌측에서 흐르는 폭포를 음폭이라고 불러 양음이 합쳐져서 천불동계곡을 이루었다.
- 양폭과 음폭 상단에서 200m를 거슬러 올라가면 천불동 계곡의 상류 마지막 아름다운 폭포인 천당폭포에 이르게 되는데, 모든 속세에서 고난을 겪고 살아오다가 이곳에 오르면 마치 천당에 이른 통쾌감을 느끼게 된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 천불동(千佛洞)이라는 호칭은 계곡일대에 펼쳐지는 천봉만암(千峰萬岩)과 청수옥담(淸水玉潭)의 세계가 마치 천불의 기관을 구현한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바위와 암봉으로 이루어진 골짜기는 범상치 않고 빼어난 천하의 절경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산악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서 더욱 명승으로서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 지정범위는 비선대 위쪽 귀면암에서부터 오련폭포, 양폭, 천당폭포까지 계곡일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화재위원 *>**

- 와선대와 비선대를 연결하는 계곡 일대는 속초시 설악동에 속한다. 이 계곡 일대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백악기 설악산 화강암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지각의 용기작용, 풍화작용, 동해로 흘러드는 쌍천의 침식작용으로 매우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어 설악산 관광의 주 탐방로가 되고 있다.
- 와선대는 하천의 마식작용으로 널따란 반석이 발달한 곳으로 수림이 울창하고 가파른 산악으로 둘러싸여 절경을 이룬다. 와선대에서는 옛날 마고선이라는 선인이 다른 선인들과 더불어 거문고를 타면서 아름다운 산수의 경치를 누워서 감상하던 곳이라 하여 와선대(臥仙臺)라고 부른다고 한다.

- 비선대는 암석하상과 2단 폭포, 폭호와 돌개구멍에 의하여 형성된 소로 구성되며 주변에는 수직절벽과 암봉이 발달하여 절경을 이룬다. 특히 비선대에서 마등령으로 가는 길목에서 비선대 앞으로 암봉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고 그 아래로 암석단애가 앞을 가로 막고 있다. 이 장군봉(미륵봉) 아래의 단애 중간에는 금강굴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금강굴은 절리를 따라 발달한 풍화작용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고선이 와선대로부터 이곳에 와 하늘로 올라간 곳이라 하여 비선대(飛仙臺)라고 부른다고 한다.
- 비선대에서 상류 쪽으로 이어지는 천불동 계곡에는 천당폭포, 염주폭포, 양폭, 오련폭포, 칠선폭포, 귀면암 등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 와선대, 비선대, 천불동계곡을 포함하여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재위원 *>**

- 깎아지른 절벽과 너럭바위가 어우러진 계곡은 소와 여울을 이루며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하사의 암반에 새겨진 비선대 각자는 윤순의 그로 알려지고, 와선대에 누워 경치를 감상하던 마고할미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어우러져 더욱 선경과 같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설악산화강암의 특징적인 당홍색 절벽과 돌 층에 뿌리 내리고 있는 수목들이 경관성을 높여주고 있다. 다만 비선대와 와선대에 군집한 상가 건물들이 전체 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아쉬워한 점이 있다. 그러나 비선대 만으로도 국가 자연유산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구역은 비선대를 중심으로하여 하류로는 와선대를 포함하고 상류로는 약 500m까지의 구간에서 계곡 양안으로 시계내의 표고 약 500m등고선으로 구획되는 구역으로 선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 천불동계곡은 설악산의 대표적인 계곡으로 비선대에서 대청봉에 이르는 계곡이다. 폭이 좁은 협곡으로 설악산화강암의 심한 차별 침식에 따라 기암괴석이 도열하고 있는 듯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어, 마치 천개의 불상이 도열하고 있는 듯한 경관을 보여준다고 하여 이름지어진 바 그대로 자연의 아름다움의 경이롭다. 당홍색의 암괴들과 어우러지는 수목들이 신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좁은 폭의 계곡이 크고 작은 폭포와 소를 발달시켜 그 아름다움을 농축하여주는 듯한 경관을 보여주어, 국가지정 명승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 지정구역 안은 비선대로부터 천당폭포에 이르는 구간의 좌우 산능을 포함하는 구역을 지정구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며, 다른 대안은 비선폭포와 천불동계곡을 통합하여 하나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본다.

<전 문화재위원 *>**

- 비선대는 외설악 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천불동 계곡에 자리하고 있는 커다란 암반지역을 지칭하는 명칭임. 천불동계곡을 흐르는 계류가 비선대의 암반을 지나며 이루는 계곡의 풍광과, 주변에 우뚝 솟은 미륵봉이 서로 어울려 절승을 형성하고 있음.

27. 「설악산 용아장성(雪嶽山 龍牙長城)」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설악산 용아장성(雪嶽山 龍牙長城)」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설악산 용아장성(雪嶽山 龍牙長城)」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1.3~11.11월 2011년 지형·지질 문화재 자원조사 연구
 - 인제군 대승폭포 : 지형·지질학적·경관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음
 - '11.11~12.2월 2012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역사자원조사 학술연구
 - 설악산 자연문화유산 관련 유람기·시문·전승 구비문학이 많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
 - '12.3~12.9월 2012년 고서화·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자원 발굴조사
 - 울산바위 : 지형·지질학적·경관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음
 - 지정조사
 - '12.9.7 / 10.9 지정조사 계획보고
 - '12.9.12.~9.14. :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대승폭포, 십이선녀탕, 수렴동·구곡담 계곡, 비선대·천불동계곡(6개소)
 - '12.10.11.~10.12. : 울산바위, 공룡능선, 용아장성, 만경대(4개소)
 - 관계전문가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 '12.11. 22. 지정추진계획보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설악산 용아장성(雪嶽山 龍牙長城)」
(봉정암 석가사리탑 ~ 옥녀봉)
 -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 지정종별 : 명승

- 금강산의 만폭동에 비유되는 경승으로 설악산의 대표적인 명소이며,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의 문장과 화폭에 묘사되는 곳으로서, 암반 위에는 '비선대'라는 글과 함께 많은 각자가 새겨져 있음.
- 비선대는 자연경승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미도 풍부한 곳으로서, 명승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평가됨.
- 외설악의 대표적 계곡의 하나로서, 비선대에서 대청봉으로 연결되는 계곡을 지칭함. 문주담, 이호담, 귀면암, 오련폭포, 양폭, 천당폭포 등 빼어난 경관요소들이 연계경관을 이루고 있음.
- 지리산 칠선계곡, 한라산 탐라계곡과 함께 한국의 3대 계곡중의 하나로 불리어지고 있는 계곡으로서, 국가지정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으로 판단됨.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 1필지 / 1,495,360㎡

명승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강원 속초시 설악동	산41	임야	23,833,924	1,495,360	강원 속초 설악동 ***	대한불교 조계종 ***
합계		1필지	임야	23,833,924	1,495,360		

아. 허용기준(안)

- 「명승 지정 대상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등 10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허용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10-101호(2010.10.07)]

깎깎	흙싹뽕뽕 흙싹뽕뽕		뽕뽕
	뽕뽕뽕뽕	꺾뽕뽕뽕(3:10 깎싹)	
1깎뽕	✓ 싹싹싹, 싹싹싹, 싹싹싹, 꺾싹싹, 싹싹싹, 싹싹싹, 싹싹싹, 싹싹싹, 싹싹싹, 싹싹싹		

자. 의결사항 : 원안검토

○ 문화재가치

- 봉정암 사리탑을 기점으로, 동으로는 가야동계곡과 만경대, 공룡능선을 거느리고 서로는 수렴동계곡, 구곡담계곡을 끼고 서북 주릉이 장대하고 웅장하게 펼쳐져 있어 신비로운 경관을 보여줌.
- 내설악의 중심에 자리한 용아장성은 용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암봉들이 연이어 성처럼 길게 둘러쳐 있으며, 20여개의 크고 작은 암봉들이 용의 송곳니처럼 솟아 있음.
- 용아장성은 운해가 암봉들을 휘감을 때면 마치 신선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듯 신비롭고 경이로운 비경을 보여주며, 가을이면 붉은 단풍 바다로 물이 들면 용아장성은 더욱 비경을 보여줌.

○ 문화재구역 : 1필지 / 757,090㎡

○ 문화재관리단체 : 인제군

라. 문화재현황

【 입지현황 】

- 봉정암 사리탑을 기점으로 동으로는 가야동계곡과 만경대, 오세폭포, 공룡능선을 거느리고 서로는 수렴동계곡, 구곡담계곡을 끼고 서북주능선이 장대하게 펼쳐져 있음. 백운동계곡을 상류에 두고 쌍룡폭, 관음폭, 용손폭포, 만수폭포 등이 장관을 이루어 백담사 앞을 흐르는 백담계곡까지 흘러서 내설악계곡미의 대표적 풍치를 만들어주고 있어 명승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남.

【 지형·지질 】

- 용아장성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어 수직절리에 의한 급경사의 암반경사(rock slope)를 갖는 험준한 암봉들이 연이어 늘어서 있어 장관을 이룸.

【 유래 및 전설 】

- 내설악의 중심에 자리한 용아장성은 용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암봉들이 연이어 성처럼 길게 둘러쳐 있으며, 20여개의 크고 작은 암봉들이 용의 송곳니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임.

【 자연 경관 】

- 북쪽으로는 가야동계곡을 끼고 공룡능선과 마주보고 있으며, 남쪽으로 수렴동의 구곡담계곡을 끼고 있어 절경을 이룸.
- 설악산 용아장성은 소청봉에서 봉정암 뒤를 지나 1,224m 봉이 있고, 칠형제봉을 지나 옥녀봉에 이르기까지 능선이 파노라마하게 연결되는데 흰 화강암의 암봉들이 마치 용의 치아모양처럼 뾰족 뾰족 올라와 있고 성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용아장성(龍牙長城)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룸.

【 옛 문헌자료 】

- 왕유정(王維楨, 1507~1555)은 중국 명(明) 나라의 학자로, 자는 윤녕(允寧), 호는 괴야(槐野)이며 화주(華州, 현 섬서성 화현) 사람으로 「**한계산기(寒溪山記)**」에서 설악산을 언급한 최초의 자료로 설악산을 명승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음. “한계산은 강원도 인제현에서 동쪽으로 50리에 있다. 산 위에 성이 있고 냇물이 있는데, 성 안에서부터 흘러 나와 폭포를 이루어 내려온다. 폭포는 수백 척인데 올라다보면 마치 흰 무지개가 하늘에 드리운 듯하다. 원통역부터 동쪽으로 좌우가 모두 큰 산이고, 골짜기가 깊고 깊으며 시냇물은 종횡으로 흘러 건너야 되는 것이 36개이다. 수목은 대자리 같아 위로 뻗은 것이 구름과 하늘을 찌르고, 옆에는 걸가지도 없다. 송백은 더욱 높아 그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 남쪽 봉우리는 절벽을 이루었으니 높이가 천 길이나 되어 기괴한 것이 형용할 수가 없으며, 새들도 날아 건너갈 수가 없다. 그 아래로는 맑은 샘물이 바위에 부딪치며 못을 이루었고, 너럭바위는 평평하고 넓어 앉을 수가 있다. 또 동쪽으로 몇 리를 가면 골짜기 입구는 매우 좁고 가는 길이 벼랑을 따라 나있는데, 골짜기 안은 험하다.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는 가파르게 솟아 있어 마치 용처럼 낚아채고 범처럼 활귀는 듯하고 층층이 대를 이룬 듯한 것이 무수하니, 그 형승은 영서에서 으뜸이다.”

마. 검토의견 (*****)

- 봉정암 사리탑을 기점으로, 동으로는 가야동계곡과 만경대, 공룡능선을 거느리고 서로는 수렴동계곡, 구곡담계곡을 끼고 서북 주릉이 장대하고 웅장하게 펼쳐져 있어 신비로운 경관을 보여주는 설악산의 대표적인 능선임.
- 용아장성은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어 수직절리에 의한 급경사의 암반경사(rock slope)를 갖는 험준한 암봉들이 연이어 늘어서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명승 지정가치가 높음.

바. 지정조사 의견('12.9.12~14)

<문화재위원* ***>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위치하는 용아장성은 봉정암 사리탑을 기점으로 하여 동으로 가야동 계곡과 만경대 및 공룡능선으로 이어지고, 서로는 수렴동, 구곡담 계곡을 끼고 펼쳐지는 내설악의 대표적인 능선이며, 20여 개의 크고 작은 암봉들이 용의 송곳이빨처럼 솟아 올라 있어 이 이름이 붙여졌다.

28. 「설악산 공룡능선(雪嶽山 恐龍稜線)」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설악산 공룡능선(雪嶽山 恐龍稜線)」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설악산 공룡능선(雪嶽山 恐龍稜線)」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1.3~'11.11월 2011년 지형·지질 문화재 자원조사 연구
 - 인제군 대승폭포 : 지형·지질학적·경관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음
 - '11.11~'12.2월 2012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역사자원조사 학술연구
 - 설악산 자연문화유산 관련 유람기·시문·전승 구비문헌이 많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
 - '12.3~'12.9월 2012년 고서화·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자원 발굴조사
 - 울산바위 : 지형·지질학적·경관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음
 - 지정조사
 - '12.9.7 / 10.9 지정조사 계획보고
 - '12.9.12.~9.14. :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대승폭포, 십이선녀탕, 수렴동·구곡담 계곡, 비선대·천불동계곡(6개소)
 - '12.10.11.~10.12. : 울산바위, 공룡능선, 용아장성, 만경대(4개소)
 - 관계전문가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 '12.11. 22. 지정추진계획보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설악산 공룡능선(雪嶽山 恐龍稜線)」 (신선대 ~ 마등령)
 -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1
 - 지정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마등령에서 신선암까지 능선을 가리키며, 공룡능선은 영동·영서를 분기점으로 구름이 자주 끼는 등 기상변화가 시시각각 변함.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설악의 중심 능성이며, 내설악의 가야동계곡, 용아장성을 한눈에 바라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외설악의 천불동계곡부터 동해바다까지 시원하게 펼쳐진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임.
- 공룡능선은 생긴 모습이 공룡이 용솨음치는 것처럼 힘차고 장쾌하게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임.
- 공룡능선을 구름이 휘감은 모습은 마치 신선의 영역을 보는 듯한 초절정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줌.
- 국립공원 100경 중 제1경일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하며, 신비로운 경관을 보여줌.
- 문화재구역 : 2필지 / 1,313,080㎡
- 문화재관리단체 : 강원도

라. 문화재현황

【 입지현황 】

- 마등령에서 신선암까지 능선을 말하며, 거대한 공룡의 등줄기를 연상시키며, 나한봉, 뽕족뽕족 힘있게 솨아오른 1,257봉 암봉들이 능선 줄기를 만들고 내설악과 외설악의 경계를 이루며, 속초시와 인제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음.

【 지형·지질 】

- 공룡능선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어 수직절리에 의한 급경사의 암반경사(rock slope)를 갖는 험준한 암봉들이 연이어 늘어서 있어 장관을 이룸.

【 유래 및 전설 】

- 마등령에서 희운각 바로 북쪽 신선암까지 바위능선을 말하며, 바위가 뽕족하여 마치 공룡의 등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임. 나한봉 1,275봉, 노인봉 1,184봉이 위치하고 있음.

【 자연경관 】

- 설악산 공룡능선은 마등령~대청봉에 이르는 북주능선 약 7km의 암봉군(岩峰群)을 말하는 것으로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면서 내설악의 용아장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외설악의 천불동계곡에서부터 동해바다까지 펼쳐진 정경을 연속적으로 전망할 수 있어 명승적 가치가 뛰어나.

【 옛 문헌자료 】

- 왕유정(王維楨, 1507~1555)은 중국 명(明) 나라의 학자로, 자는 윤녕(允寧), 호는 괴야(槐野)이며 화주(華州, 현 섬서성 화현) 사람으로 「**한계산기(寒溪山記)**」에서 설악산을 언급한 최초의 자료로 설악산을 명승적 가치를 “한계산은 강원도 인제현에서 동쪽으로 50리에 있다. 산 위에 성이 있고 냇물이 있는데, 성 안에서부터 흘러 나와 폭포를 이루어 내려온다. 폭포는 수백 척인데 올려다보면 마치 흰 무지개가 하늘에 드리운 듯하다. 원통역부터 동쪽으로 좌우가 모두 큰 산이고, 골짜기가 깊고 깊으며 시냇물은 중형으로 흘러 건너야 되는 것이 36개이다. 수목은 대자리 같아 위로 뻗은 것이 구름과 하늘을 찌르고, 옆에는 걸가지도 없다. 송백은 더욱 높아 그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 남쪽 봉우리는 절벽을 이루었으니 높이가 천 길이나 되어 기괴한 것이 형용할 수가 없으며, 새들도 날아 건너갈 수가 없다. 그 아래로는 맑은 샘물이 바위에 부딪치며 못을 이루었고, 너럭바위는 평평하고 넓어 앉을 수가 있다. 또 동쪽으로 몇 리를 가면 골짜기 입구는 매우 좁고 가는 길이 벼랑을 따라 나 있는데, 골짜기 안은 험하다. 뽕족뽕족한 산봉우리는 가파르게 솟아 있어 마치 용처럼 뉘아채고 범처럼 활키는 듯하고 층층이 대를 이룬 듯한 것이 무수하니, 그 형승은 영서에서 으뜸이다.”고 표현함.

마. 검토의견 (***)**

- 공룡능선은 영동·영서를 분기점으로 구름이 자주 끼는 등 기상변화가 시시각각 변하며, 구름이 휘감은 모습은 마치 신선의 영역을 보는 듯한 초절정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어 명승 가치가 뛰어남.
-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설악의 중심 능선이며, 내설악의 가야동계곡, 용아장성을 한눈에 바라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외설악의 천불동계곡부터 동해바다까지 시원하게 펼쳐진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임. 국립공원 100경 중 제1경일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하며, 신비로운 경관을 보여줌.

바. 지정조사 의견('12.9.12~14)

<문화재위원* *>**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위치하는 공룡능선은 마등령에서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약 7 km 길이의 능선이며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설악산의 중심 능선으로서 내설악의 가야동 용아장성과 외설악의 천불동 계곡에서부터 동해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 설악산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능선이다.

- 공룡능선은 공룡이 용솟는 것처럼 힘차고 장쾌하게 보인다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다. 국립공원 100경 중 제1경으로 지목될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한 경관을 지니고 있어서 국가지정 명승으로 추천함에 하등의 하자가 없는 곳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화재위원 *>**

- 설악산 공룡능선은 마등령~대청봉에 이르는 북주능선 약 7km의 암봉군(岩峰群)을 말하는 것으로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면서 내설악의 용아장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외설악의 천불동계곡에서부터 동해바다까지 펼쳐진 절경을 파노라마하게 전망할 수 있어 명승으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 공룡능선은 뽕족뽕족한 암봉들과 기암괴석들이 이어져 공룡의 등뼈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 넘어 보고 싶은 선망의 등산코스이기도 하고, 국립공원 100경중 제 1경으로 뽑힐 정도로 주변산세와 바위로 된 봉우리들이 아름답고 웅장하여 신선의 경지를 방불케 하는 경관을 보여주는 곳으로 명승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위원 *>**

- 설악산의 대표적인 경승지인 공룡능선은 마등령에서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약 7km 길이의 험난한 암석 능선을 가리키며, 연이어진 암봉들이 공룡의 등뼈를 연상하게 한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공룡능선에 오르면 내설악과 외설악의 빼어난 풍광을 두루 살필 수 있다.
- 공룡능선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어 수직절리에 의한 급경사의 암반경사(rock slope)를 갖는 험준한 암봉들이 연이어 들어서 있어 장관을 이룬다. 국립공원 100경중 제1경으로 손꼽을 정도로 아름답고 웅장하며, 신비로운 경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명승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전 문화재위원 *>**

- 공룡능선(恐龍稜線)은 외설악과 내설악을 남북으로 가르는 설악산의 대표적인 능선임. 마등령에서 대청봉까지 이어지는 약 7km 길이의 능선으로서, 그 생긴 모습이 마치 공룡의 등처럼 뽕족한 바위들이 줄지어 솟아올라 있어 공룡이 용솟음치는 것과 같이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속초시와 인제군의 경계를 이루기도 하는 공룡능선은 설악의 중심능선으로, 용아장성을 비롯한 내설악의 모습과 천불동계곡에서 동해에 이르는 외설악의 풍광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능선임.
-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 아름다운 장소를 선별한 ‘국립공원 100경’ 중에서 제1경으로 꼽히는 비경으로, 공룡능선은 명승으로 지정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경승이다.

연지(演之), 호는 간재(良齋)이다. 조암을 읊은 시의 시주(詩註)에 선인이 말 먹이는 곳이 천후산에 있다고 언급하여, 세간에서는 천후산을 곧 선계(仙界)처럼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뾰뾰한 숲 속에 있는 조암을 신선이 남긴 자취라 하였고, 학을 타고 선계에 오르면 천리마[騏驎]로 변한다는 등의 전설을 시로 읊음.

-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상보(尙輔), 호는 백헌(白軒)이다. 바위에 뚫린 구멍에선 뇌성 소리가 울리고, 높은 봉우리 끝에서 해도 서성인다고 하였다. 또한 염천의 날씨에도 바람이 매우 시원하게 불어옴을 부처와 광한진(廣寒殿; 달 속의 궁전)에 비유하여 노래함.
- 정범조(丁範祖, 1723-1801)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법세(法世), 호는 해좌(海左)이다. 쇠로 된 벼랑이 첩첩이 쌓여 있고, 차고 푸른 나무가 울창하다고 하였으며,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사슴의 발자국이 눈 위에 남아 있다고 하는 등 천후산의 경관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골짜기는 깊고 소나무가 어둑할 정도로 가득하다고도 하였음.
- 윤휴(尹鑄, 1617-1680)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희중(希仲), 호는 백호(白湖)이다. 계조암에 방문하여 절의 주변과 내력에 대해 설명하고, 용바위와 활모양의 반석, 흔들바위 등을 언급하였다. 계조암 뒤쪽의 천후산을 ‘돌로 된 부용꽃[石芙蓉]’이라 부르며, 그 형상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돌아오는 도중 부를 지어 흔들바위를 읊었는데, ‘구주의 술’과 ‘진시황의 종’에 비유하여 그 형용을 묘사함.
-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의 그림으로 전하는 <계조굴(繼祖窟)>은 화면 중앙에 북서쪽에 위치하는 울산바위가 압도적인 규모로 그려져 있고, 그 아래 계조굴과 주변의 경관을 재현. 울산바위의 규모를 과장하고 끌어당겨 포치하긴 했으나 기본적인 지형지세를 근거로 한 것이며, 기이한 형상의 계조굴과 유람객이 자리한 전면(前面)의 반석 위에 놓인 흔들바위 등이 확인됨.

마. 검토의견 (***)**

- 울산바위에 대해서는 주세붕, 최연, 허적 등 조선시대의 수많은 문인들이 그 웅장함과 훌륭한 경치를 노래하였으며, 울산바위 아래에는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유서 깊은 계조암과 신흥사가 있어 문화적 의미가 더하며, 수많은 고시문이 전하며, 김홍도가 그린 실경산수화도 여러 편이 남아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커 명승적 가치를 더해줌.
- 화강암의 독특한 풍화양상으로 만들어진 기암절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

감할 수 있는 경이로운 자연경관의 하나로 그 특유의 기복이 심한 산형이 주변의 다른 산체들과는 비교되어 더욱 장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울산바위 자체가 가지는 명승적 가치와 더불어 빼어난 조망점으로서 가치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음.

바. 지정조사 의견('12.9.12~14)

<문화재위원* *>**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위치하는 울산바위는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화강암체로서 6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상부에는 항아리 모양의 구멍이 5개 나 있다. 울산바위는 옛부터 ‘큰 바람 소리가 울린다’하여 천후산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으며, 외설악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선적으로 가 보기 원하는 설악산의 명소 중 하나인데, 현장을 찾는 관광객 뿐만 아니라 미시령 옛길에서 보이는 경치도 탁월하여 그 명승적인 가치가 널리 알려져 있다. 국가지정 명승으로 추천함에 의의가 없는 곳이다.

<문화재위원 *>**

- 설악산 울산바위는 해발 873m, 둘레 4km의 6개의 암봉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암괴군으로서 속초 미시령쪽에서 보면 정상부위를 중심으로 바위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정상에 올라서 보면 대청봉이 멀리 보이면서 근경으로는, 절경의 외설악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또한 동해바다가 그림처럼 조망되어서 명승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경승지라 할 수 있다.
- 울산바위명칭에 관해서는 울타리같이 생겨서 울산바위, 경남울산에서 왔다고 하여 울산바위, 우는산이라는 뜻의 울산바위(天吼山)라는 3가지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 유래에 대한 신비감마저 들게 한다.
- 또한 조선시대 문신 주세붕(1495-1554), 최연(1503-1549), 허적((1503-1549), 이경석(1595-1671), 채팽윤(1669-1731), 정범조(1723-1801) 등의 천후산 기행문에서 그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산수화의대가 김홍도(1745-1810)의 금강사군첩중 “계조굴”이란 그림에서도 계조암의 배경산으로 울산바위를 절경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 명승으로서의 경관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문화재위원 *>**

- 설악산 울산바위 일대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속초 화강암이 분포한다. 속초 화강암을 관입한 설악산 화강암 지대에 발달한 공룡능선이나 용아장성과 같은 날카롭고 험준한 암석 능선의 지형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

30.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雪嶽山 內雪嶽 萬景臺)」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雪嶽山 內雪嶽 萬景臺)」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雪嶽山 內雪嶽 萬景臺)」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 추진경과
 - '11.3~11.11월 2011년 지형·지질 문화재 자원조사 연구
 - 인제군 대승폭포 : 지형·지질학적·경관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음
 - '11.11~12.2월 2012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역사자원조사 학술연구
 - 설악산 자연문화유산 관련 유람기·시문·전승 구비문학이 많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
 - '12.3~12.9월 2012년 고서화·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자원 발굴조사
 - 울산바위 : 지형·지질학적·경관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음
 - 지정조사
 - '12.9.7 / 10.9 지정조사 계획보고
 - '12.9.12.~9.14. :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대승폭포, 십이선녀탕, 수렴동·구곡담 계곡, 비선대·친불동계곡(6개소)
 - '12.10.11.~10.12. : 울산바위, 공룡능선, 용아장성, 만경대(4개소)
 - 관계전문가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 '12. 11. 22. 지정추진계획보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雪嶽山 內雪嶽 萬景臺)」
 -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산75
 - 지정종별 : 명승

다. 그러나 화학적 풍화가 깊게 진행된 후, 풍화 산물인 마사토층(saprolite)은 침식되어 제거되고 돔(dome) 모양의 암반들이 지표에 노출되어 보른하르트(bornhardt)라는 지형이 발달하게 되는데, 울산바위는 전형적인 보른하르트 지형이다.

- 울산바위는 둘레가 4km에 이르는 6개의 거대한 암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상부에 항아리 모양의 구멍이 5개 있고, 200~300m의 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 명승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울산(蔚山)이라는 명칭은 기이한 봉우리가 울타리(蔚)를 설치한 것과 같다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조선지도 등의 고지도에는 천후산(天吼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바위가 많은 산에서 바람이 불어나오는 것을 하늘이 울고 있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전 문화재위원 ***>

- 설악산 구역의 북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기암으로서, 속초시 방향의 먼 곳에서도 한 눈에 바라보이는 경승임.
- 설악산 권역에 있는 다수의 경승자원 중 매우 우수한 자원으로서, 국가지정명승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임.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 2필지 / 631,090㎡

명승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울산바위	강원 속초시 설악동	산40	임야	4,834,097	177,220	강원 속초 설악동 ***	대한불교 조계종 ***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1-2	임야	1,587,922	453,870	대전 서구 청사로 189	국유(산림청)
	소계				631,090		
합계		2필지	임야		631,090		

아. 허용기준(안)

- 「명승 지정 대상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등 10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허용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10-101호(2010.10.07)]

광범	훼손불균 훼손광범		광범
	훼손불균	균질광범(3:10 광범)	
1광범	✓ 숲훼손, 광범광, 유수광, 균질광 등광범, 훼손불균, 훼손 불균 광범 광범		

자. 의결사항 : 원안검토

- 문화재가치
 - 만경대는 오세암 바로 앞의 해발 922.2m인 봉우리로 용아장성, 공룡능선, 흑선동계곡, 나한봉 등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저명한 경관조망지점임.
 - 만경대는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율사가 암자를 짓고 관음암이라 하였다가 허물어진 것을 인조 21년(1643)에 설정(雪淨)이 다시 세운 오세암(五歲菴)이 바로 앞에 있어 역사문화적·경관적 가치가 더욱 뛰어나다.
- 문화재구역 : 2필지 / 134,640㎡
- 문화재관리단체 : 인제군

라. 문화재현황

【 입지현황 】

- 만경대는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율사가 암자를 짓고 관음암이라 하였다가 허물어진 것을 인조 21년(1643)에 설정(雪淨)이 다시 세운 오세암(五歲菴)이 바로 앞에 있음.
- 만경대는 오세암 바로 앞에 있는 기암 봉우리로 용아장성, 공룡능선, 흑선동계곡, 나한봉 등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저명한 경관조망지점임.

【 지형·지질 】

- 공룡능선·용아장성과 같은 중생대 백악기에 관입한 설악산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어 수직절리에 의한 급경사의 암반경사(rock slope)를 갖는 험준한 암봉들이 연이어 늘어서 있어 장관을 이룸.

【 유래 및 전설 】

- 내설악 만경대(萬景臺)는 용아장성, 서북능선, 공룡능선, 흑선동계곡, 옥녀봉, 나한봉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세암 바로 앞의 해발 922.2m의 봉우리로서 이곳에 오르면 일만(一萬)가지 모든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하여 만경대(萬景臺)라고 함.

【 자연 경관 】

- 만경대는 오세암 바로 앞의 해발 922.2m인 봉우리로 용아장성릉, 공룡능선, 흑선동계곡, 나한봉, 오세암 등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저명한 경관조망지점으로 웅장하고 수려한 설악산의 신비스러운 기암괴석들이 눈앞에 장관으로 펼쳐짐.

【 옛 문헌자료 】

- 김창협(金昌協) 「동정기(東征記)」에서 병자년(1696) 8월 30일에 만경대에 올라 만경대의 감회를 “30일에 아침을 먹고 나서 가마에 올라 만경대

(萬景臺)로 향하였다. 만경대는 대승암 남쪽 5리쯤에 있는데, 하나의 바위 봉우리였다. 가장 앞에 있는 바위 벼랑은 매우 높고 가팔라서 아래를 내려다봐도 땅이 보이지 않고, 위로는 더욱 깎아지른 듯하여 겨우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었다. 올라가 산속을 보니, 여러 바위 골짜기들이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훤히 보였다. 마침 흰 안개가 마치 큰 바다처럼 가득히 피어나, 주위의 경물을 삼켰다 토해 내고 생겨났다 사라지곤 하면서 순식간에 천 가지 모습으로 변하였다. 한참 동안 앉아 보다가 가파른 비탈길을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 어려움은 어제 걸었던 길과 다름이 없었다. 다만 어제는 오르막이었고 오늘은 내리막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었다. 5리를 가서 비로소 남여에 올라 한계사(寒溪寺)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해가 질 무렵에 읍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함.

- 만경대는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율사가 암자를 짓고 관음암이라 하였다가 허물어진 것을 인조 21년(1643)에 설정(雪淨)이 다시 세운 오세암(五歲菴)이 바로 앞에 있어 경관적 가치가 더욱 빛남.
- 주변에 마모된 석물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매월당 김시습이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하여 그의 별호 오세신동(五歲神童)을 따서 오세암이라 했다는 설이 있고, 신라때 매월(每月)대사가 두살된 조카를 데리고 와 이곳에 암자를 짓고 지냈는데, 늦은 겨울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눈이 많이 내려 그 이듬해 봄이 된뒤 돌아와보니, 죽은줄로만 알았던 조카가 살아있으므로 다섯된 아이가 불도에 통한것이라는 뜻으로 오세암(五歲菴)이라 이름이 붙여졌다는 전설 등이 내려오고 있어 인문경관적 깊이를 더해주고 있음.

마. 검토의견 (*****)

- 만경대는 오세암 바로 앞의 해발 922.2m인 봉우리로 용아장성, 공룡능선, 흑선동계곡, 나한봉 등의 일만(一萬)가지 모든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저명한 경관조망지점으로 명승 지정 가치가 높음.

바. 지정조사 의견('12.9.12~14)

<문화재위원* ***>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위치하는 만경대는 오세암 바로 앞에 있는 해발 922.2 m인 봉우리로서, 용아장성, 공룡능선, 흑선동계곡, 나한봉 등의 절경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조망 지점이 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설악산의 명소이다. 국가지정 명승으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고사항】

천기 2012-11-31

31.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안)」 보고

가. 보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통일적인 영문 명칭을 지정할 기준을 정한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지침(안)」을 부의 합니다.

나. 보고사유

- 우리 문화재 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 시행을 통하여 교육, 홍보 증진과 더불어 영문 명칭 표기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지침(안)」(문화재청 예규)을 마련하여 2013. 1월 이후 시행하고자 보고 드림

다. 보고내용

- (1) 보고자 : 문화재청장
- (2) 주요내용
 - 적용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로 함(제3조)
 -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의 기본·일반원칙(제4~5조)
 - 건조물, 유적 등 단일 구성 명칭인 문화재의 영문 표기(제6~10조)
 - 도자, 석조, 목조 등 복합 구성 명칭인 문화재의 영문 표기(제11~18)
 - 지명이 포함된 문화재의 영문 표기(제19~22조)
 - 인명이 포함된 문화재의 영문 표기(제23~24)
 - 영문표기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재검토 기간(제25~26조)
 - 문화재 영문 명칭 지정에 필요한 문화재 유형별 명명 요소 목록([붙임])

라. 검토의견(***)**

- 문화재 명칭의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이 없어 관련 기관의 필요에 따른 표기로 동일 문화재에 대한 서로 다른 영문 표기가 있는 등 문화재 교육 및 홍보와 정확한 문화재 안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안)」은 문화재 유형별 통일된 영문 표기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일관된 영문 문화재 명칭을 부여할 수 있어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 문화재의 정확하고 올바른 안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규칙(안)을 행정규칙(문화재청 예규)화 하여 대외 시행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천기 2012-11-32

3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25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322호 무주일원반딧불 이와 그 먹이서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명 : 수종갱신 ○ 허가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썩헛썩</th> <th>깡뽕</th> <th>썩썩(썩썩)</th> </tr> </thead> <tbody> <tr> <td>*** 썩160-1</td> <td>밤햇썩 썩썩썩</td> <td>(1,000), 뽕썩뽕(2,000)</td> </tr> <tr> <td>*** 썩176-1</td> <td>밤햇썩 썩썩썩</td> <td>흙뽕뽕(500), 뽕썩뽕(500)</td> </tr> <tr> <td>*** 썩180-1</td> <td>밤햇썩 썩썩썩</td> <td>뽕햇뽕(600), 썩뽕뽕(600)</td> </tr> </tbody> </table>	썩헛썩	깡뽕	썩썩(썩썩)	*** 썩160-1	밤햇썩 썩썩썩	(1,000), 뽕썩뽕(2,000)	*** 썩176-1	밤햇썩 썩썩썩	흙뽕뽕(500), 뽕썩뽕(500)	*** 썩180-1	밤햇썩 썩썩썩	뽕햇뽕(600), 썩뽕뽕(600)	<허가>
	썩헛썩	깡뽕	썩썩(썩썩)												
	*** 썩160-1	밤햇썩 썩썩썩	(1,000), 뽕썩뽕(2,000)												
*** 썩176-1	밤햇썩 썩썩썩	흙뽕뽕(500), 뽕썩뽕(500)													
*** 썩180-1	밤햇썩 썩썩썩	뽕햇뽕(600), 썩뽕뽕(600)													
천연기념물 제453호 남생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 허가사항 : 남생이 증식·복원 연구를 위한 사육 ○ 허가기간 : 2012. 11. 02. ~ 2017. 11. 01. ○ 개체수 : 남생이 6마리(성체3개체, 유체3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제324-6호 소쩍새 제323-8호 황조롱이 제243-1호 독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경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허가사항 : 전시·관람 및 자연학습을 위한 사육 (구조후 치료는 완료되었으나 사냥 및 비행곤란 개체) ○ 허가기간 : 2012. 11. 8. ~ 2017. 11. 7 ○ 개체수 : 개체별 각 1마리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28호 큰고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 허가사항 : 야생동물 관찰원 자연학습 자료 활용을 위한 사유 ○ 허가기간 : 2012. 9. 18. ~ 2017. 9. 17. ○ 개체수 : 큰고니 2마리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제 -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공군북부전투사령부) - 천연기념물 제204호 팔색조 (경남야생동물센터) -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경남야생동물센터) -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경남야생동물센터) - 천연기념물 제331호 물범(웅진군수) -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낙동강하구예코센터장) -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리(공군제30방공관제단)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한국**기지국(주)대표이사 *** ○ 허가사항 - 사업명 : 이동통신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해안동 2821 - 사업내용 : 환경친화형 산림안테나 1개소(H=12.0) 및 케이블 관로 설치 ○ 허가기간 : 2012.10.25 ~ 2013.4.30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천왕사(주지 ***) ○ 허가사항 - 사업명 : 천왕사 경내 배수로 정비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산20-17 - 사업내용 : 환경친화형 산림안테나 1개소(H=12.0) 및 케이블 관로 설치 ○ 허가기간 : 2012.10.25 ~ 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제주지방기상청장 ○ 허가사항 - 사업명 : 기상관측 이전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24 - 사업내용 : 기상관측장비 이전 · (기존) 화장실 옥상→(변경) 탐방안내소 옥상 ○ 허가기간 : 2012.11.20~12.31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주)****엔지니어링 ○ 허가사항 - 사업명 : 홍도항 북측선착장 안전진단 용역 지반조사 - 사업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북측선착장 일원 - 사업내용 : 지반조사 5개소, 76mm, 8*10m 굴착 ○ 허가기간 : 2012.10.25 ~ 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89호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광양시장 ○ 허가사항 - 사업명 : 도선국사 천년숲길 정비사업 - 사업위치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35-1 - 사업내용 : 산책로 정비 L=458m, 목제난간설치100m, 목계단 설치 45m ○ 허가기간 : 2012.11.6~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534호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경상남도 개발공사 ○ 신청내용 : 화석산지 정비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산 21 등 ○ 허가내용 - 지정구역 상부 퇴적층 제거, 화석산지 3D 스캔 및 화석 조사, 파쇄작업, 복제품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기지국(주) ○ 신청내용 : 공용화기기지국 시설공사 ○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34-8번지 ○ 허가내용 : 사용면적 : 20㎡ / 최고높이 35.5m 	<허가>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기지국(주) ○ 신청내용 : 공용화기기지국 시설공사 ○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4-14번지 ○ 허가내용 : 사용면적 : 20㎡ / 최고높이 35.5m 	<허가>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기업 ○ 신청내용 : 보도교 설치 ○ 사업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268-5 ○ 허가내용 : 폭 3m, 길이 80m 보도교 설치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명승 제34호 보길도 윤선도 원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보길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공사 ○ 위 치 :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항리 202 ○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레탄 포장 1,345㎡ - 인조잔디 조성 1,389㎡ - 수목제거는 이식으로 변경 1주 등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11.30일까지 	<허가>
	명승 제32호 문경새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연풍새재 옛길 복원사업 ○ 위 치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76-1, 산1-1번진 일원 ○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흙포장 L=1.5km, B=4.0~5.0m - 마사토·콘크리트포장 철거 L=1.5km, B=4.0~5.0m - 조경정비 : 조령관주변 흙포장 면적 5,400㎡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9.30일까지 	<허가>
	명승 제32호 문경새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문경새재 탐방로 내 자연석수로 설치 사업 ○ 위 치 : 문경새재도립공원 (새재2관문 ~ 새재3관문) ○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석 배수로 교체 : L = 411m, B = 0.4m H=0.45~0.55m · 노후 콘크리트 철거 L = 411m, B = 0.4m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9.30일까지 	<허가>
	명승 제32호 문경새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KBS드라마 <전우치> 임시세트 설치 및 철거 ○ 위 치 : 문경새재 세트장 및 2관문 주변, 원터 일대 ○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사 1동 15㎡ - 기존 주막 담장·초가지붕·울타리 보수 등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2.28일까지 	<허가>
	명승 제23호 봉화 청량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청량산 어풍대~김생굴 구간 탐방객 추락 사고 방지 안전난간 설치 ○ 위 치 : 청량산 어풍대~김생굴 구간 - 목재 안전난간 설치 : L=60m, H=31.2m - 토사절취 : 7㎡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1.31일까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명승 제23호 봉화 청량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봉화 청량산 내 이동전화 통화품질향상을 위한 통신전주 설치를 위한 통신전주 설치 - 통신전주 2본설치 : H=16m(친환경 소나무 위장형) ○ 위 치 :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228번지, 1398번지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2.12.31일까지 	<허가>
	명승 제57호 영월 한반도 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영월 한반도 지형 토지보상지역 조경수 과실수 이전 (총 단풍나무 등 8종 1,010주) - 단풍나무 150주, 은행나무 10주, 향나무 10주, 목련 200주, 마로니에 200주 구상나무 20주, 잣나무 400주, 느티나무 20주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3.04.30일까지 	<허가>
	명승 제24호 부산 오륙도	<p><변경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륙도 등대 선착장 개량 공사 - 현재 규모 내 <p>○ 허가기간 : 2011.7.28~2012.08.30</p> <p><변경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륙도 등대 선착장 개량 공사 - 기존 규모 내 시공법선 1.6m 등대섬쪽 수평이동 <p>○ 허가기간 : 2011.7.28~2012.12.31</p>	<허가사항 변경 허가>
허가 사항 변경 허가	명승 제27호 양상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p><변경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인도 설치 - L=170m, B=2m(합성목재 데크설치) - 식생보강토 옹벽 설치(L=85m, H=0.7~6.1m, 425㎡) · 경관을 고려하여 옹벽사이에 토사를 채워 넣어 풀과 꽃의 식생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아스팔트 포장 90㎡(기존 도로부 훼손부 보수) - 줄때 : 477㎡ ○ 사업기간 : 2012.2.2일부터 2012.12.31일까지 <p><변경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인도 설치 - L=146m, B=2~2.6m - 자연석 허튼층쌓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 : L= 58m, A=120㎡, H=0.5~2.0m, · 2단 : L= 48m, A=100㎡, H=0.5~2.0m, · 3단 : L= 38m, A=113㎡, H=0.5~2.0m, 합계 : L= 144m, A=333㎡ H=0.5~2.0m, - 아스팔트 포장 90㎡ - 평때 : 419㎡ ○ 사업기간 : 2012.2.2일부터 2013.12.31일까지 	<허가사항 변경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 사업명 : 작업대기소 및 정비고 정비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 변경허가사항 : 지하수 관정개발 추가 ○ 허가기간 : 2012.11.5~12.31 	<허가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한숙수자원공사 사장 ○ 신청내용 : 낙동강 하류 피항지 설치기간 변경 ○ 위치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1-394 ○ 변경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초 : '12. 2.28 ~ '12. 10.31 - 변경 : - '12. 2.28 ~ '13. 7.31 	<허가사항 변경 허가>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